

장신대, 故 마삼락·마애린 추모예배 및 기념행사 개최

서정운 목사 '지상명령' 설교... 한국교회와 신학 교육에 남긴 헌신 기려

고(故) 마삼락 협동학장과 마애린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예배 및 기념행사가 8일 오전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박경수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추모예배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서는 김영철 목사(법안이사)가 대표기도를 드리고, 고원석 목사(경건교육처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서정운 목사(명예총장)가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본문으로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서 목사는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는 마삼락 목사님과 그 가문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선교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라며 "마삼락 목사님은 선교사이자 동료 교수로서 늘 따뜻하게 함께해 주셨고, 은퇴 후에도 한국교회와 학교를 향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 학교가 선교사 가문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큰 복이며, 그들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년 전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이유는 분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든 이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며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

며 복음을 삶으로 실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을 세우는 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쉽지 않고 목회와 선교의 길도 간단하지 않지만, 붙들어야 할 사명은 분명하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라며 "선교의 선진들이 남긴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교회에 보호와 인도,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를 함께 불렀으며, 정훈 목사(총회장)의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기념행사는 이상익 목사(기획정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모영상을 시청한 뒤 데이비드 해켓 목사와 정순현 목사의 추모사를 들었다.

해켓 목사는 "마삼락 협동학장과 마애린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는 이 자리는 두 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스도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어떻게 삶을 드렸는지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한국의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이야기와 물건들을 보내주며 한국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사람은 훗날 직접 한국을 찾고 선교사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국 곳곳을 함께 다니며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꾼 귀한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해켓 목사는 "마삼락 목사님은 학자이자 교회사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며 대화할 때마다 은혜와 유머를 잃지 않았고, 동역자를 합당하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신앙 자세도

이어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위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 섬김의 성품 때문에 본받고 싶은 삶이었다"며 "그가 남긴 격려와 기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현 목사는 "마삼락 협동학장과 마애린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삶으로 보여준 분들"이라며 "1985년 프린스턴에서 모팻 박사의 선교학 수업을 들으며 처음 만났을 때, 지성뿐 아니라 겸손과 인품, 유머와 온유함,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마삼락 협동학장



마애린 선교사

이어 "모팻 부부는 친구이자 가족, 멘토가 돼 주셨다"며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두 분의 삶은 학문적 업적을 넘어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는 신앙의 유산이었다"며 "한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법과 겸손, 긍휼, 섬김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믿음의 길을 기억하고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에게 배우며,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정진 목사(이사장)는 두 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며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했다.

김 목사는 "마삼락 목사님과 마애린 사모님은 학교와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남긴 분들"이라며 "학창 시절 받은 도움과 프린스턴 방문 때 베풀어 주신 환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한 질문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정 가운데 두 분을 기억하고 기념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선교사 가정과 대를 이어 선교의 길을 걷는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간 선교사들이 걸었던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이어가며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삼락(새뮤얼 H. 모팻) 박사와 평생의 동역자인 마애린(아이린 F. 모팻) 선교사는 25년 넘게 한국에서 사역하며 한국교회와 신학 교육에 헌신했다.

평양 선교의 선구자인 마포삼열 선교사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마삼락 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장, 협동학장을 역임했다. 복음주의적 열정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아우르는 선교 신학을 제시했으며, 아시아 기독교 역사 연구를 통해 세계 교회사 학계에도 업적을 남겼다.

마애린 선교사는 기독교 교육과 문서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 1956년 마삼락 박사와 결혼한 뒤 안동과 서울 등지에서 사역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학계를 섬겼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은퇴 후에도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와 관심을 이어갔다. 다니엘 최 기자

박선용 목사, 미래교회전략연구소 신임 이사장 취임

8일 이·취임식 개최... 초대 이사장 신정호 목사 이임

예장 통합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023년 설립된 미래교회전략연구소(소장 문재진 목사)의 이사장 아취임 감사예배가 8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다. 초대 이사장인

신정호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이임하고 제2대 이사장으로 박선용 목사가 경교회에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아취임식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호 목사(동춘교회)가 인도한 예배에선 이범주 목사(인천주만교회)가 기도했고, 김종섭 목사(창대교회)의 성경봉독과 구현모 찬양사역자의 특송 후 이성희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연동교회 원로)가 '한 사람 vs 한 사람'(롬 5:12-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된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는 원죄를 얻게 되었다. 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 한 것"이라며 "이 죄가 지금까지 지어져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며 "그러므로 미래 교회의 전략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복음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답"이라고 전했다.

예배는 이성희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이어진 아취임식은 미래교회전략연구소 소장인 문재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신임 이사장인 박선용 목사가 이임하는 신정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신정호 목사는 이임인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는 것이 연구소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에 미래 목회의 전략은 어떤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진 목사가 신임 이사장 박선용 목사를 소개한 뒤 박용기 목사(미래교회전략연구소 연구원)가 박선용 신임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저출산·고령화, 교세 감소 등이 우리 앞에 있다"며

"이러한 시대에 미래교회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을 느낀다. 더 나은 미래와 목회 전략 및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노력하며 달려가겠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사장직을 겸손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한 권위영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 서울금교회는) "이임하신 신정호 목사님의 그 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박선용 목사님께 축하를 드린다"며 "교회의 미래를 열고 기적을 이루는 연구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목 장로(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와 이송철 한남대학교 총장도 박선용 목사의 미래교회전략연구소 신임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행사는 문재진 목사의 내빈소개와 광고 및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촬영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미래교회전략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선용 목사(왼쪽)가 연구원인 박용기 목사에게서 취임패를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편, 미래교회전략연구소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목회자의 성장, 목회전략 컨설팅, 교육목회 플랫폼,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독인재 양성 등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측하고 연구하면서 섬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진영 기자

JESUS LOVE

마음을 전하는 단체 선물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 · 선물세트 · 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QR로 바로 주문

UV 장우산

고급 볼펜

세라믹 텀블러

말씀 머그컵

검찰, 정명석 추가 성범죄 혐의에 징역 27년 구형

“종교적 신뢰 악용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해”
정조은 징역 7년 구형...정명석 선고 내달 1일

여신도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씨의 추가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7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가 종교적 지위와 교단 내부 체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 검찰 “종교적 신뢰 악용...누번 기간에 다시 범행”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 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 세뇌하고 범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

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강 이수와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정씨 측의 최종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로 예정됐다.

◆ 피해자 16명 상대 범행 혐의...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정씨는 이번 사건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과 유사사건,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기록일보DB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설득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교단 내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른 조력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앞서 교단 내에서 ‘신앙스타’로

불린 여신도와 일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광호·주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수행한 사건에서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한 이번 사건은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추가 성범죄 사건이다. 노형구 기자

17세기 ‘제네바 불어 성경’ 한국에 기증

위그노 가문이 박해 속 지켜온 1678년 성경...

한불수교 140주년 맞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 전달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적 유산인 17세기 ‘제네바 불어 성경’이 한국에 기증됐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은 프랑스연합개신교회(EPUdF)가 프랑스 개신교 조상인 위그노 뒤몽 가문이 대대로 보존해온 1678년산 ‘제네바 불어 성경’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 기증했다고 6일 밝혔다.

기증식은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피브-릴프랑스연합개신교회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답례로 이사장 이영훈 목사 명의의 감사패와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알려진 ‘예수성경전서’ 영인본을 전달했다.

◆ 위그노 박해 역사 담긴 1678년 성경

기증된 성경은 1588년에 발간된 베자의 불어 성경 개정본 계열로, 제네바 도서관과 미국 성경박물관 등에도 동일본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박해의 흔적을 간직한 유물로 평가된다.

위그노 전쟁에서 전사한 안투안 뒤몽의 후손들이 제네바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뒤, 낭트죄령 철폐 이후 이어진 박해 속에서도 가문의 장남에게 대대로 물려주며 숨겨 보존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군사들의 개신교인 색출에 대비해 ‘성경(Bi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앞뒤 서문과 색인 페이지가 빠져 있는 점도 종교 박해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소개됐다.

이 성경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제네바와 쥐라, 라 레파라, 파리, 서울 등 3개국 8곳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 ‘양국 역사·선교 교류 더욱 공고해지길’

엘마누엘 세이볼트 전 프랑스연합개신교회 총회장은 기증식에서 “프랑스 개신교 신앙의 중심인 이 성경이 한국교회에 전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가 더욱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 기증된 불어 성경(1678년). ©뉴스시스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소장자이자 기증자인 피에르 몽쟁 교수는 가톨릭 신자로, 오랜 세월 이어진 박해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은

성경을 한국에 기증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공포와 침묵, 망각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이 성경을 한국 개신교 박물관에 기증하는 일이 평화와 일치, 복음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프랑스 개신교와 위그노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교회가 프랑스 개신교의 신앙 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침이다.

◆ 몽펠리에에서 첫 위그노 역사·선교포럼도 열려

기증식 이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는 ‘제1회 위그노 역사·선교포럼’도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위그노의 역사를 현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시 살피고, 그 신앙과 선교적 의미를 오늘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순달의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이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경을 지켜온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니엘 최 기자

학부모들 “포괄적 성교육 폐기해야”... 5세 유아 성교육 사례 공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생식기 색깔 활동 문제 제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자녀를 사

랑하는 학부모 일동이 유아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폐기와 학부모의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회 김민진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성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생식기 그림을 색칠하는 활동에 참여한 뒤 어린이 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 “5세 자녀, 교육 이후 심리적 어려움 호소”

5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김유나 씨는 어린이집 알람장 사진을 통해 자녀가 생식기 그림을 색칠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후 자녀가 해당 활동을 불편해하고 어린이집에 가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신은 해당 사안을 정서적·성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라면 과연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표현과 활동이 발달 단계에 적절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해당 어린이집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 성교육 업체의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교육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과 교사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 교육을 중단하고 학부모 의견을 들은 조치에 대해서는 의

미가 있다고 했다.

◆ “외부 성교육 내용 사전에 공개해야”

김 씨는 외부 성교육 업체를 향해 실제 수업 내용과 강의계획을 학부모와 교육기관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 당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이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전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모든 외부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에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학부모 백고은 씨도 성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정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교육이라며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 씨는 성적 지향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개념을 어느 연령부터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성교육의 출발점은 생명과 책임이야 한다”고 말했다.

◆ “발달 단계·정서적 안전 우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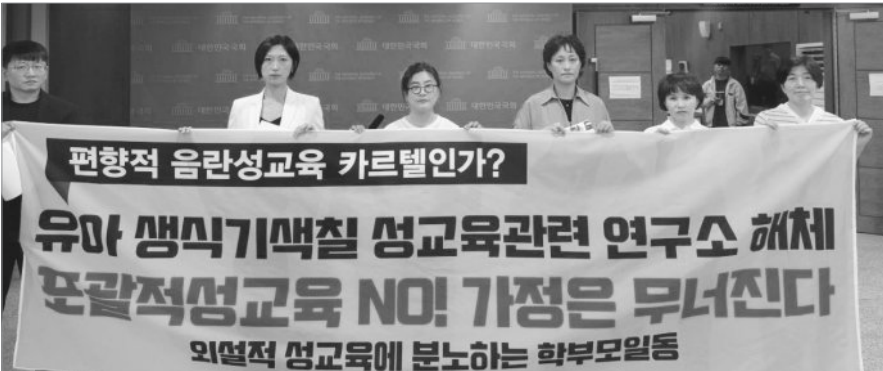
학부모들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유아와 아동의 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생식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리는 활동 등을 문제 삼으며 “유아기는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은 성적 개념을 조기에 교육하는 방식보다 인성과 성품 교육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서 성교육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니엘 최 기자



학부모들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회 김민진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진 의원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한국동서발전주

제4회 북한인권논문상 시상… “연구 쌓여 법·제도 돼야”

디지털 증거·피해자 구제·탈북 아동 강제송환 등 조명…
북한 인권 책임규명과 제도적 해법 모색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북한인권논문상 등 시상식'을 개최하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 증거 보존 등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 인권 관련 논문과 기사 등을 발굴하고 연구자와 법률가, 언론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북한인권논문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논문 등 공모전은 예비 법조인과 신세대 학자, 언론인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실정”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의 정당성과 실천력을 강화하는 논문과 보고서, 기사를 발표한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연구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 “책임 규명 넘어 법제도적 축적 필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단순한 실태 고발을 넘어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논의의 초점이 인권 침해의 참상을 알리는 데서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로 옮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출품된 논문들이 디지털 증거와 인공지능(AI), 손해배상, 증거 보존 제도, 미국의 대북 제재 법제, 탈북 아동의 강제송환 문제, 유엔 인권 메카니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며 연구의 폭과 깊이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의 논문 한 편 한 편이 당장 북한 주민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러한 연구가 쌓여 법과 제도가 되고, 언젠가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된다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송효석 인권이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젊은 법률가를 발굴하는 이번 시상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이 축사

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연구와 기사 등 다양한 성과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증거·피해자 구제·탈북 아동 문제 등 수상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과 국제인권법 박사과정의 황진희 씨가 받았다. 황씨는 “북한 인권 침해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국제 형사재판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연구했다.”

황씨는 수상 소감에서 “향후 국제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갖추고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논문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상 탈북민 진술과 위성영상, 공개자료, 휴대전화 영상,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조사 기록 등을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디지털 증거 분석에 활용되더라도 분석 결과 자체가 범죄 사실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료의 출처와 보존 과정, 기술적 검증, AI의 분석 과정, 인간의 해석,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7단계 법적 평가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인권 침해를 기록했다는 것과 그 기록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며 기록화된 자료가 사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용 씨가 받았다. 오씨는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에서 장래 재판을 위한 증거 보존과 현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씨는 “어느 법정에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큼 지금부터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적인 증거 보존 기구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향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북한 측 재산에 구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소영 “탈북 아동 강제송환, 아동권리협약 관점서 봐야”

한변 회장상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 보호를 연구한 박소영 법학박사에게 돌아갔다.

박 박사는 기존 탈북민 강제송환 논의가 주로 상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탈북 아동의 문제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권리협약의 해석에 따라 아동이 송환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실질적 위험이 있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북 아동은 성인보다 스스로 위험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송환을 집행하는 국가가 아동의 안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박사는 “탈북 아동은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라며 중국과 라오스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북한 체제의 주민 통제 관련 법제를 분석한 한명섭 변호사가 논문 특별상을,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등을 통해 북한군 포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보도한 월간조선 박지현 기자가 기사 특별상을 받았다. 북한 위장취업 원경 노동자의 임금채권, 미국의 오토 원바이어법과 대북 인권 제재 법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AI와 디지털 증거 활용 등을 다룬 연구들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반도 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제4회 북한인권논문상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니엘 최 기자



이재원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김태훈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과 국제인권법 박사과정의 황진희 씨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을 수상했다. ©다니엘 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용 씨(오른쪽)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했다. ©다니엘 최 기자



김태훈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심방’도 변한다… 교인 전체→원하는 가정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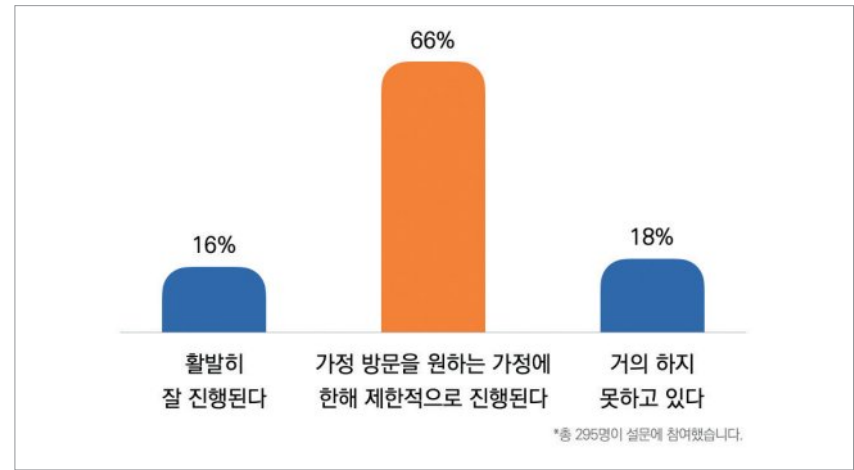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담당목사 295명 대상 조사

교회들은 ‘가정심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담당목사 29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 방문을 원하는 가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18%, ‘활발히 잘 진행된다’ 16%였다.

목데연은 이에 대해 “전통적인 정기 전체 심방 방식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귀 교회는 현재 교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정심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개별적 필요와 수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선택적으로 가정심방을 운영하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김진영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https://ashania.com>



아시안미션, 이주민 사역의 든든한 ‘동행’ 있다

이랜드의 비영리 선교법인 아시안미션(대표 이상준, 이하 AM)이 체류 외국인 270만 명을 넘어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이주민 사역의 연속성을 다지고 현장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AM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6층에서 ‘AM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수년간 최일선에서 이주민 사역의 뼈대를 다져온 시니어 코디들의 헌신을 위로하고, 새롭게 임명될 차세대 코디들과 함께 더 촘촘하고 유기

적인 사역 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예배와 함께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AM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주민 사역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시니어 이주민 코디 8명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장이 전달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발굴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이러한 눈물 흘린 헌신은 오늘날 AM 이주민 사역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향후 전국 의 지역별·국가별 현장을 밀착 연결할 차

세대 코디 18명이 새롭게 임명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차세대 코디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이주민들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배경에 맞춘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AM은 이들을 통해 한층 더 암묵적이고 현장 밀착형인 사역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상준 대표는 성경적 사역의 본질을 깊이 있게 역설했다. 이상준 대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며 “우리 역시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

들의 아픔과 삶을 보듬으며 묵묵히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모든 시니어 및 차세대 코디들이 서로의 사역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앞으로 맡겨질 거룩한 사명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합심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다.

아시안미션은 이번 코디 개편과 네트워크 강화를 발판 삼아,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역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회원들의 모습. ©아시안미션

김호승 목사, ‘경인 제125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말씀 전해

9월 8일 어મે세계선교센터서 개최



갈릴리소명교회 담임 김호승 목사(사진)가 8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어메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리는 ‘경인 제125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번 기도회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경인지역 모임이 주관하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과 민족의 화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2004년 사랑의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함께 시작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을 모태로 한다. 이후 2011년 31개 통일선교단체가 연합해 현재의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로 재출범했으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초교파 복음통일 기도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 목요모임이 1,000회

를 돌파하는 등 장기간 기도의 불씨를 이어왔다.

특히 주빌리는 단순히 정치사회적 차원의 통일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도와 연합, 다음세대와 통일선교를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합통일기도, 이산가족, 사회문화 교류, 다음세대 통일교육, 탈북민 교회와의 협력, 통일코리아의 영적 부흥 등을 아우르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80대 기

도제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경인 제125차 기도회는 이 같은 전국적 복음통일 기도운동을 지역교회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수도권 서부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강사로 나서는 김호승牧사는 언론인 출신 목회자로 현재 갈릴리소명교회 담임목사,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홍보기획위원장, 어메세계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며 교계 복음화운동과 선교기도운

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시대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복음으로 화복되고 한국교회가 통일시대를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호승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사명”이라며 “교단과 교파,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

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인 제125차 기도회가 단순한 한 차례의 집회를 넘어 복음통일과 민족복음화를 향한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현재 국내외 여러 지역의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통일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교회가 연합과 사랑의 정신으로 남북을 잇는 영적 디딤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아현성결교회, 주차장 100면 주민 개방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북아현동 소재 아현성결교회와 손잡고 교회 부설주차장을 주민을 위한 공유주차장으로 전격 전환·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신설 없이도 도심 한복판에 100면 규모의 새로운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 구는 이번 주차장 개방이 충정로역과 아현역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된 주차 공간은 아현성결교회 지하 2~3층에 위치한 100면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교회 예배가 진행되는 일요일을



아현성결교회 주차장 모습. ©서대문구

제외한 모든 시간(24시간)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 당일권 1만 원, 월 정가권 12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모두의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권을 사전 구매할 경우 이용권 종류에 따라 25~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주차장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차 차단시설과 안내 간판 등 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지역 내 민간시설의 공유주차장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도심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여유 공간과 주민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학술원, 18일 ‘바른 성경이해’ 주제로 월례학술포럼

양재은누리교회서 제120회 기도회 및 발표회…

박정관 교수 발표·전용호 교수 논평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은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은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바른 성경이해’를 주제로 제120회 월례학술포럼 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김영한 원장(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대원장)이 사회와 개회사를 맡는다. 박정관 교수(장신대 은퇴교수)가 발표하고, 전용호 교수(종신대 겸임교

수가 논평한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되는 경건회는 기독교학술원 교무부장 오성종 교수(전 갈빈대 신학대학원장)가 인도한다. 노영상 교수(전 호신대 총장)가 설교하며, 지정자 목사(트리니티교회)가 특송한다.

기도 순서에서는 이윤희 목사(한국군목회 이사장)가 국가를 위해, 최성대 목사(기독교학술원 수사미라클교회)가 한국

교회와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사)는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발표와 논평 이후에는 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박봉규 목사가 광고를 전하고, 노영상 교수가 축도한다.

행사에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기독교학술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기독교학술원(02-570-7548, 010-7772-5344)으로 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경기 시흥 신천장로교회,

10월 ‘제7차 새생명축제·4인4색 부흥성회’ 개최



성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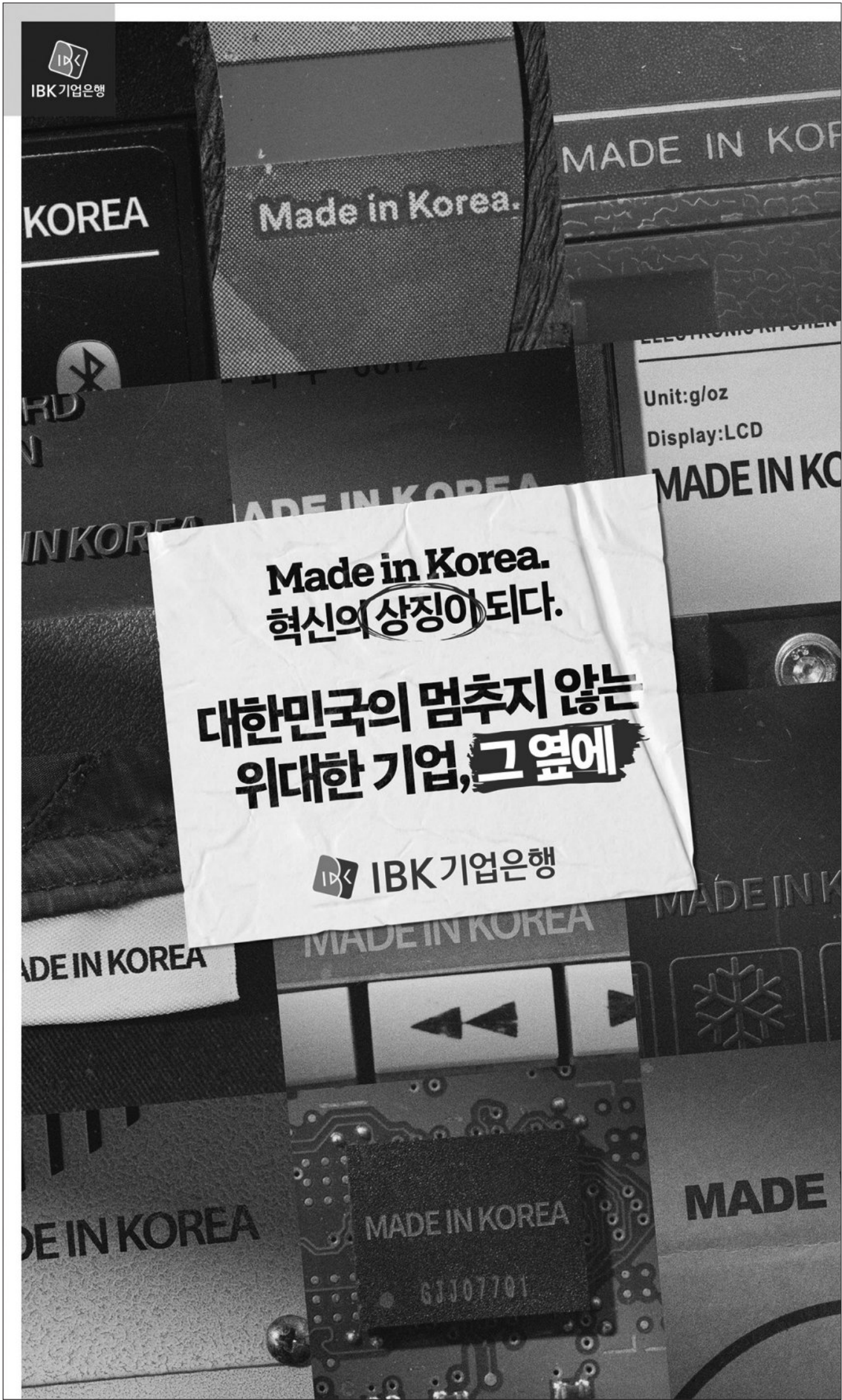
이번 부흥성회는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다채로운 말씀과 찬양의 자

리로 진행된다. 첫째 주 날인 10월 4일 오후 7시에는 개그맨 출신 배영만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어 11일 오후 7시에는 전주샘물교회 서화평 목사가, 18일 오후 7시에는 ‘힐링 남녀’로 잘 알려진 강원구·모리아 목사 부부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성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2시에는 박모세의 초청 찬양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신천장로교회는 선교와 나눔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내외 지역사회를 다각도로 섬겨왔다. 특히 필리핀 현지 5개 지교회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해외 선교 사역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담임인 강형구 목사는 사단법인 기독교문화선교회 대표회장직을 맡아 기독교 문화 확산과 영상 회화에 힘쓰고 있다.

노형구 기자



찬양으로 섬긴 20년, 이제 ‘예배 공동체’로… 더라이프장로교회 확장 준비

5개월간 아내와 둘이 예배, 여성도들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내가 하려던 것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창립 2년 6개월을 맞은 뉴욕 더라이프 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가 새로운 예배처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개척 초기 5개월 넘게 주일예배 참석자가 유 목사와 아내 단둘뿐이었던 교회였지만 이후 한 사람이 찾아오고 또 한 사람이 더해졌다. 신앙과 가정의 어려움을 안고 온 여성도들이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거나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남편들도 하나둘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 첫돌 당시 1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했던 공동체는 이제 현재 공간이 비좁아 새로운 예배처를 찾아야 할 단계까지 왔다.

더라이프장로교회의 지난 2년 6개월은 단순히 성도 수가 늘어난 과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자 한 사람”을 세워 온 시간에 가깝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신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 됐다. 유 목사는 “우리가 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찾아왔다”며 “내가 하려던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지금 돌아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20여 년 찬양사역 지나 붙든 ‘지성소 예배’

유 목사는 뉴욕에서 20여 년 동안 찬양과 문화사역으로 한인교회들을 섬겨왔다. 라이프라인미션과 YP3 등을 통해 찬양집회와 문화사역을 펼쳤고, 오케스트라와 찬양팀, 드라미팀 등을 함께 운영할 당시에는 전체 참여 인원이 70~80명을 넘기도 했다. 찬양사역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선교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교회에서 청빙을 받거나 부서를 맡으며 목회 현장에도 계속 들어갔다.

그러나 사역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즈음 뜻하지 않게 다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유 목사는 비슷한 경험을 네 차례 겪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국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찬양과 선교사역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회의 계획과 힘을 내려놓는 훈련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유 목사는 “교회를 맡게 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며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모으고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빠진 자리에 ‘한 사람의 예배’를 바라보는 목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붙든 것이 ‘지성소 예배’였다. 오랫동안 찬양을 인도해 온 유 목사에게 찬양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었다. 예배자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통로였다. 여러 교회와 집회에서 지성소 예배를 인도하며 타주와 해외로 사역을 넓혀갔지만, 정작 유 목사 자신이 그 의미를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아니라 아내와 단둘이 예배했던 작은 공간에서였다.

현재 더라이프장로교회에 예배하는 곳은 유 목사 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지하다. 처음에는 유 목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형태의 예배 장소였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특히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성소 예배를 말하면서 저 자신이 정작 장소를 따지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됐다. 유 목사는 “지성소 예배자로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

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려 했다”며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를 시작했다고 사람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약 5개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린 사람은 유 목사와 아내뿐이었다. 유 목사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 두 부부밖에 없는데도 정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다”며 “둘이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실제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많이 말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내와 5개월 동안 드렸던 예배를 통해 그것을 내 삶으로 알게 됐다”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다시 세워진 셈이다.

◆둘에서 시작된 예배, 한 사람씩 세워진 공동체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한 여성도가 지인의 소개로 예배에 참석했다. 유 목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한 번 예배한 뒤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성도는 첫날 예배를 드린 뒤 계속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 둘이 드리던 예배가 세 사람의 예배가 됐다.

이어 스토니브룩에서 공부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청년이 찾아왔다. 당시 차량이 없었던 그는 가차를 타고 한 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오가며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다. 기타를 연주하는 유 목사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청년이 함께 찬양하면 서 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한층 풍성해졌다. 이 청년은 이후 약 2년 동안 먼 거리를 오가며 꾸준히 교회를 섬겼다. 유 목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전도든 예배든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고 했다.

전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무엇을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권하는 방식보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현재 신앙생활은 어떤지,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을 포기하시며 했거나 부부 사이에서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유 목사는 “무엇을 강요하기보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관계전도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먼저 찾아온 이들은 남편과의 관계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던 여성도들이었다. 남편의 음주 문제나 오랜 신앙 단절 등으로 지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 목사는 이들에게 남편을 먼저 교회로 데려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본인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편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집사님과 권사님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다”며 “본인이 회복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줘도 변화가 쉽지 않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성도들은 약 6~7개월 동안 예배와 기도예 집중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여성 중보기도모임도 이어졌다. 다섯 명 안팎이 모여 서로의 삶과 가정의 문제를 깊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5시간가량 계속되기도 했다. 유 목사는 목회자가 모든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모를 중심으로 여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했고, 이 시간이 가정 회복에 중요한 역



더라이프장로교회 담임 유태웅 목사 ©김대원 기자



2025년 3월에 드린 더라이프장로교회 1주년 기념예배. ©교회 측 제공

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여성도들이 변하면서 남편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 가정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해 미국생활 25년 동안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가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된 뒤 그 역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결국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고 주일예배뿐 아니라 수요성경공부와 금요예배에도 꾸준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약 10년 동안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또 다른 남편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기타를 배우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의 확신 없이 출석만 이어가던 이가 말씀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온 남편은 7명가량이었다. 유 목사는 숫자보다 그 변화가 한 가정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봤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부모가 갑자기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자 타주에 있던 자녀가 직접 교회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유 목사는 “교회의 가정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은혜였다”며 “부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하는 목회 방향은 더라이프장로교회의 주일 풍경에서도 드러난다. 예배는 오전 11시30분에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대부분 11시부터 모인다. 예배가 오후 1시까지 끝난 뒤에도 대부분 돌아가지 않고 함께 식사한 뒤 말씀과 삶을 나눈다. 식사 후 커피 나눔까지 마치면 오후 3시30분가량 된다. 유 목사는 이를 ‘예배, 식사 나눔, 말씀 친교’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주일 하루만큼은 다른 일보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온전히 집중하자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유 목사의 아내가 먼저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여성 중보기도팀이 함께 참여하자 남편들도 관심을 갖고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미 일독을 마친 성도들이 나왔고 여러 명이 통독을 이어가고 있다. 유 목사는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적어도 성경을 한 번 통독한 뒤 질문하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는 다음세대 사역을 서둘러 넓히기보다 먼저 장년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모가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서야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도들이 직분을 맡기 전에는 정해진 성경공부 과정 가운데 핵심 세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첫 과정에는 8명이 참여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성소 예배’가 있다. 더라이프장로교회의 예배 순서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더라이프장로교회가 최근 가진 야외예배. ©교회 측 제공

비교적 단순하지만 유 목사는 예배자가 찬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동안 의무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께 몰입해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며 “지성소 예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개척을 기간 동안 유 목사의 목회 방식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담임목회를 맡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전도하며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선한다. 유 목사는 “저의 경우 개척을 하면서 전도나 목회가 나의 생각이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며 “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맡겨진 영혼에게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배처 확장을 넘어 선교 소망 함께 품어

처음 부부 둘이 드렸던 예배는 이제 더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로 자랐다. 시작 당시 부부 2명이던 교회는 5개월이 지나자 네댓 명이 됐고 첫돌 무렵 10명이 됐다. 둘째 해에는 20명을 놓고 기도했고 남편들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가 채워졌다. 이제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현재 공간이 비좁다는 데 공감하며 인근에서 새로운 예배처를 찾고 있다. 현재도 아내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남편들이 적지 않아 조만간 지금의 예배 공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목사가 바라보는 다음 단계는 단순히 더 큰 예배당을 갖는 데 있지 않다. 그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같은 마음을 가진 후임자가 준비

된다면 언젠가는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다시 지성소 예배와 선교사역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도들이 함께 머물며 예배하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기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동체 안에는 삶의 마지막 시간을 선교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적지 않다. 유 목사는 언젠가 아들과 함께 머물며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곳에서 또 하나의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교회 성장이 더 큰 조직을 만드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성도들이 다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유 목사는 “앞으로도 지성소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다시 자신의 삶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찬양사역으로 시작해 여러 교회를 섬기고, 반복된 내려놓음 끝에 다시 두 사람의 예배로 돌아왔던 유 목사의 사역은 이제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목회로 이어지고 있다. 더라이프장로교회가 준비하는 새로운 예배처 역시 그 여정의 종착점이라기보다, 그렇게 회복된 예배자들이 다시 세상과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과정에 가깝다. 김대원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CPU AI 설교연구소·미주복음방송, 「AI와 신학」 논문 공모전 공동 개최

CPU AI 설교연구소와 미주복음방송(KGBC)이 「AI와 신학」을 주제로 논문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원고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2027년 1월 중 발표한다. 시상식 및 연구발표회는 2027년 3월 중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심사의 방향이다. 주최 측은 AI 도구의 활용법이나 일반적인 AI 철학·윤리 논의 보다, AI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문화인류학적 현상을 관찰·분석하고 그것이 묵화와 신학에 제기하는 질문을 다루는 연구를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AI 도구 활용 사례 보고, 현상 분석 없는 일반적 AI 철학 논의, 기존 AI 윤리 담론의 요약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조직신학, 성서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선교학, 기독교 윤리는 물론 묵화상담·기독교상담, 기독교 교육, 기독교사회복지, 종교학 등 신학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한다.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뿐 아니라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 묵화자, 선교사, 상담사, 기

독교 교육·상담·복지 현장 실무자도 응모할 수 있으며, 사회학·인류학·교육학·상담학·심리학·사회복지학·미디어연구·정보과학 등 인접 학문 연구자의 단독 또는 공동 투고도 가능하다.

연구소는 현장 관찰, 심층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등 실증적 방법에 기반한 연구를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주제 예시로는 묵화적 권위와 알고리즘적 권위의 경합, 신자들의 일상적 AI 사용 문화, 설교 청중의 청취 습관 변화, AI 상담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경험, 청소년의 신앙 형성 과정 변화, 복지현장의 디지털 격차, 성경번역과 언어 접근성 등이 제시됐다.

원고 규격은 국내 주요 신학·종교학 학술지의 표준 투고규정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며, 분량과 서식, 국·영문 초록과 주제어, 인용 양식을 국내 학술지 통례에 맞춰 정했다(세부 규격은 페이퍼콜에서 안내). 이는 응모자가 공모전 제출 이후 별도의 형식 수정 없이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접수하지 않지만, 본 공모

전 제출 원고를 이후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자유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수상이 학술지 게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사 중이나 결과 발표 이후 이미 발표된 원고로 확인되면 수상 취소 및 상금 지급 철회 대상이 된다.

심사는 예비 검토 후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이중 익명심사로 진행하며, 두 심사자의 판정이 크게 다를 경우 제3심을 실시한다.

공모전 자체가 AI를 주제로 하는 만큼,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되 사용한 경우에는 모델명과 사용 영역을 「생성형 AI 활용 공개문」에 명시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권고가 아닌 제출 요건으로, 누락 시 보완 요청 또는 심사 제외 대상이 된다.

사용 영역은 자료 조사, 번역, 문장 교정, 영문 초록, 개요 구성,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AI가 관련한 작업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하며, ‘부분적으로 사용함’ 같은 포괄적 표현은 공개로 인정되지 않는다. AI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AI가 생성한 참고문헌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사용 사실을 고의로



최우수 1명 USD 1,000, 우수 2명 각 USD 700, 장려 4명 각 USD 300으로, 기본 상금은 총 7명 USD 3,600 규모다. 한국 거주 수상자에게는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지급하며, 투고료와

심사료는 없다. 여기에 학술적 확산을 겨냥한 장치로, 수상작이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1편당 추가 상금 USD 200을 지급한다. 수상작 7편이 모두 게재되면 USD 1,400이 추가되어 총 상금은 최대 USD 5,000이 된다. 게재 확정 후 증빙 자료를 주최 측에 보내면 지급 절차를 안내한다. 원고는 이메일(api@cpu.edu)로 접수하며 사진 등록 절차는 없다. 세부 규격과 제출 서류는 연구소 홈페이지(cpuai.org)에서 배포하는 「페이퍼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U AI 설교연구소 소장 이세영 박사는 “교인은 묵화자에게 묻기 전에 AI에게 묻고, 학생은 교사보다 먼저 AI와 대화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보다 응답이 빠른 기계 앞에 앉는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신학의 질문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CPU 총장 이상명 박사는 “신학은 언제나 자기 시대의 물음 앞에서 자라났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물음은 인

공지능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과 공동체에 관한 오래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모전이 AI를 찬양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교회와 사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신학의 언어로 다시 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학이 시대를 앞서 가지는 못해도, 시대를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 기관인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교인들이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아시워하는지를 방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듣는 자리에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그 물음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묵화는 기술을 잘 다루는 묵화가 아니라, 기술이 바꾸어 놓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묵화일 것”이라며 “그 읽기를 도울 연구가 나오도록 방송이 가진 통로를 열어 두려 한다”고 공동주최 참여 배경을 밝혔다.

문의: api@cpu.edu · cpuai.org
김민선 기자

2026 밀알의 밤, 간미연 & 황바울 부부와 함께 한다

‘2026 밀알의 밤’이 ‘따뜻한 동행’(전도서 49-120)만 주제로,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미연’ 집사와 남편 ‘황바울’ 집사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이들 부부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1997 년, 불과 15 세의 나이에 5인조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간미연 집사는 ‘야야야’, ‘Killer’, ‘우연’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며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1 세대 한류 열풍을 이끌었. 남편 황바울 집사 역시 지난 2006 년 방송 데뷔 이후 다수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실력파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다. 간미연 집사가 거친 연애계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황바울 집

사는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었으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 또 여러 간증 집회와 방송활동을 통해 자신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 ‘따뜻한 동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간미연&황바울 부부의 진솔한 삶의 나눔은 한인교도들에게 파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2026년까지 총 \$3,281,488을



전달했다. 올해에도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18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Chong's Family Foundation 장학생 5명, Faith and Donovan Chang Foundation 장학생 16명, 제 3 국 및 동남아 장학생 2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119명에게 \$134,888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밀알의 밤은 10월 9일(금) 오후 7시30분 토렌스조은교회, 10월 1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동성교회에서 열리며 티켓은 20불이다. 티켓은 중앙일보 핫딜 사이트(https://m.hotdeal.koreadaily.com)에서 ‘2026 밀알의 밤’ 검색하거나 밀알의 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남가주밀알선교단 Tel: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 열린다

남가주교회협의회(사)한국피스메이커 주관, 한길교회 후원... 이철·여삼열 목사,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와 사례 나누

미주 한인 이민 교회 안에서 세대 간 갈등과 목회자 소진(Burn-out)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 원리로 교회 분쟁을 조정하고 화평의 문화를 세워갈 목회 리더십 세미나가 마련된다. ‘2026 미주 피스메이커(Peacemaker)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9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로 분쟁 없는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운다’이며, 성경적 화해의 원리와 그 실제 적용을 다룬다. 세미나가 마련된 배경에는 교회 안팎



에 걸쳐 깊어지는 갈등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2026 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83%)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조화가 요구되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결과,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항목으로는 ‘의사소통 방식’(67%), ‘교회 봉사 자세’(62%), ‘정차사회적 이슈’(60%), ‘예배 스타일’(57%) 등이 꼽혔다.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는 한인 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이 깊은 ‘영적 반이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갈등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화평의 문화를

세워갈 지도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세미나는 남가주교회협의회와 (사)한국피스메이커가 주관하며, 한길교회가 후원한다.

강사로서는 이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 기독교 화해 중재위원)와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가 나선다. 두 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화해의 원리와 분쟁 조정 해결의 적용 및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성경적 갈등 해결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가운데, 일반 성도들을 위한 ‘피스메이커 공개 세미나’도 별도로 마련된다. 공개 세미나는 이보다 앞선 9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열리며, 여삼열 목사가 강의를 맡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세미나가 열리는 LA한길교회는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 위치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보도한 기자, 5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 벗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보도했다가 형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국제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국제기구 ADF 인터내셔널은 지난 27일(이하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나이지리아 언론인 루카 빈니야트(Luka Binniyat)가 형사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빈니야트는 2021년 11월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에 '나이지리아 경찰, 학살을 '악행'이라 비난하면서도 체포는 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체포됐다. 해당 기사는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적 폭력과 특히 기독교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다뤘다.

기사에서 빈니야트는 나이지리아 상원의원 단주마 라(Danjuma Laah)의 발언을 인용했다. 라 의원은 당시 카두나주 내부안보 담당 장관 사무



©ChatGPT

엘 아루완(Samuel Aruwan)이 기독교인 농민에 대한 공격을 '충돌(clash)'로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라 의원은 카두나주 정부가 아루완 장관을 내세워 남부 카두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을 은폐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니야트는 이후 아루완 장관을 상대로 사이버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4일간 구금된 뒤 2022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법적 절차는 계속됐다.

카두나 연방법원은 체포 후 4년이 넘게 지난 올해 5월 판결을 내리고 빈니야트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니야트는 판결 이후 "석방되고 혐의가 기각된 것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이번 경험은 나이지리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체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공직자들의 발언과 대응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DF 인터내셔널의 국제 종교자유 담당 수석변호사 손 넬슨(Sean Nelson)은 빈니야트가 나이지리아 상원의원의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넬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루카의 무죄를 확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돼야 한다"며 "잔혹 행위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범죄가 아니며, 종교적 박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소가 아니라 보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 사태를 보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부 지역을 중

심으로 기독교인이 다수인 농촌 공동체를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 지역에서도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 계열 극단주의 단체 등의 활동으로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폭력 사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 우려 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나이지리아를 CPC로 지정하면서 급진 이슬람 테러단체와 무장 목축민들로 인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폐교된 美 기독교 대학, 가상공간으로 보존

“학교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폐교한 미국 기독교 대학의 캠퍼스를 디지털 공간에 보존해 졸업생들이 앞으로 학교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팔로스하이츠에 위치한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Trinity Christian College)의 캠퍼스를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는 주인공은 ऐ전즈 이노베이션스(Egents Innovations)를 설립한 애슐리 나와오펜로와 살롬 나와오펜로 부부다.

부부가 제작한 가상 캠퍼스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당신은 견딘다'는 의미의 '페르두라스(Perduras)'다. 공식 웹사이트는 오는 10월 4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물리적인 공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캠퍼스가 매각되고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곳은 그 공간이 형성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페르두라스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라며 "사람도, 장소도, 공동체와 자신을 형성한 공간 사이의 연결도 건물의 벽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페르두라스라는 이름은 애슐리 나와오펜로가 노스웨스턴 칼리지 재학 당시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에서 한 학기를 보낸 경험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부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물리적 건축물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어 건물이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역사가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65년 역사 뒤로하고 문 닫은 대학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는 지난해 11월 재정난을 이유로 2025~2026학년도를 끝으로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재학생은 약 1,000명에 달했으며, 학교는 65년 넘게 운영돼 왔다.

당시 장인 대통령인 제닌 모지(Jeanine Mozie)는 "상당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이사회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랑하는 학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폐교 소식은 나와오펜로 부부에게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애슐리의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해외연수 경험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졸업한 웨스트마 칼리지(Westmar College)도 1990년대 폐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그녀의 아버지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보여주거나 돌아갈 물리적인 장소를 잃었다"며 "트리니티가 폐교를 발표했을 때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공동체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사용해 트리니티의 유산과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다"며 학교 측에 보존 계획을 제안했고, 지난 4월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캠퍼스 전체 촬영에 20만 달러

부부는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가 운영을 종료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두 차례 캠퍼스를 방문해 60에이커(약 24만㎡) 규모의 캠퍼스 전체를 촬영했다.

전문 드론 조종사인 애슐리는 드론을 이용해 건물 외관을 촬영했고, 샴들은 학교 내 18개 건물을 직접 걸으며 내부 공간을 촬영했다.

이들은 "학교가 매각된 뒤에는 다시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없었다"며 "20년 후 어떤 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질지 알 수 없었기에 모든 방과 구석, 복도를 촬영해야 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캠퍼스를 기록하기 위해 함께 걸은 거리는 약 20만 걸음에 달하며, 고해상도 이미지 자료만 100GB 이상 확보했다.

"이전 프로젝트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ऐ전즈 이노베이션스는 2020년부터 병원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가상 투어를 제작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노숙 위기에 처한 잠전용사들에게 작은 주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베테런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빌리지의 가상 투어도 제작했다.

그러나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프로젝트는 이전 작업과는 "범주와 규모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부부는 설명했다.

기존 프로젝트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시설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트리니티 프로젝트는 폐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학교와 그곳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캠퍼스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 때 촬영했다"며 "문과 벽에는 앞으로 열릴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야외 공용 공간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기존 고객



미국 일리노이주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이사회 의장인 켄 드라이프하우트(왼쪽)와 권한대행 총장인 제닌 모지가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2025~2026학년도 말에 학교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Screen-shot/Trinity Christian College

의 웹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학교가 폐교하면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투어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는 학교의 역사와 유산,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페르두라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페르두라스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부터 일부 졸업생들은 가상공간을 통해 모교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그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경이감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장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다"며 "우리가 모든 방문자에게 그런 감정을 주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삶을 바꾼 대화를 나눴던 복도를 다시 걸어보고, 첫 시험을 준비했던 방이나 힘든 시기에 기도했던 장소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졸업생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상 캠퍼스를 보여주며 "이곳이 나를 형성한 장소다. 이곳에서 나는 지금의 내가 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캠퍼스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고 싶다"며 "폐교가 반드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벽을 넘어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U 대사, 파키스탄 인권 개선 없으면 무역 특혜 중단 경고

2029년 이후 GSP+ 연장 불투명 전망 신성모독법 악용 및 소수 종교 탄압 실태 지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연합(EU)이 파키스탄 정부를 향해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경고를 내놓았다. 9월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키스탄이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을 억압하는 현재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방지할 경우,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대규모 무역 특혜 접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 주파키스탄 유럽연합 대사(사진)는 지난 8월 31일 현지 언론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유지 여부가 2029년 이후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파키스



탄이 해당 무역 특혜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엔 인권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결정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현재 GSP+ 협정에 따라 대유럽연합 수출에서 약 7억 3200만 유로 규모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방직 산업이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힌다. 이 제도는 파키스탄에 무역 접근권을 제공하는 대신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파키스탄이 현재 요구되는 27개 협약과 향후 요구될 32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으나,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GSP+ 특혜를 잃게 되면 파키스탄은 관세율이 더 높은 일반 GSP 적용 대상으로 강등된다.

◆파키스탄 기독교 박해 및 신성모독법 악용 실태 지적

카로블리스 대사는 2014년 GSP+ 도입 이후 파키스탄이 사형 집행 축소나 아동 혼인 금지법 마련 등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소수 민족 및 소수 종교의 권리 부문에서는 뚜렷한 퇴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제 실종, 언론의 자유 억압과 더불어 소수 종교 인권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지목했다.

특히 유럽연합 측은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 사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슬라마바드 등 일부 지역에서 신성모독 혐의 구금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으나 편자브주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500명 이상이 여전히 관련 혐의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가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도구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개인적 분쟁이 종교적 혐의로 번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폭동이나 예배당 방화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신성모독 혐의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신성모독 갱단의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확실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슬람 소수파인 아흐마디아 공동체에 대한 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파키스탄 국민인 이들의 신체적 안전과 예배 시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실질적 집행 요구 및 국제 인권 기준 준수 강조

아동 강제 혼인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은 서류상의 법률 유지가 아닌 현장에서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기독교인 및 힌두교 등 소수 종교 출신 미성년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되고 나 이 많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하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사법 및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피해 가족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제적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을 파키스탄 정부에 주

문했다.

이 밖에도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 문제 불공정한 사법 절차 등 파키스탄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파키스탄이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안보적 특수성을 인지하면서도 테러 대응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프간 난민 문제와 관련해 강제 송환 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유럽연합 측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는 등의 외교적 역할이 인권 문제 해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로블리스 대사는 유럽연합이 파키스탄에 유럽 수준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정한 보편적 인권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러시아, 외국인 전도 행위 시 ‘강제 추방’ 의무화 법안 시행

러시아가 종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불법 선교 활동으로 적발된 외국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예외 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한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추방을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말은 법원이 개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추방을 면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판부는 해당 외국인의 현지 체류 상황을 고려해 추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전문 선교사가 아닌 일반 외국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노상에서 신앙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타인을 예배에 청하는 행위 등 단순 전도 활동만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역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는 경찰이 종교적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체포·조사한 뒤 법원에 이송하며,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벌금 부과와 추방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러시아 군과 계약을 맺고 복무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을 금지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교 활동을 처벌하는 러시아의 종교법을 엄중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하며, 미국 국무부에 러시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우간다 50대 남성, 기독교 개종 이유로 아들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이슬람 버렸다는 이유로 가족이 폭행 가해... 인근 병원 치료 후 피신 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우간다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50대 남성이 친아들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월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우간다 기독교 박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가족 내 종교 갈등이 실질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진 상황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우간다 이강가 타운 카운슬 나칼라마 마을에 거주하는 52세 키바리케 아부무사는 지난 8월 9일 자택에서 이슬람교도인 아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부무사는 진자시에 머물던 중 지난 6월 1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두 달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아부무사는 진자 시 복음주의 교회의 자갈리아 세르와다 목사가 주최한 전도 집회에 참석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지인의 권유로 해당 집회에 참석한 그는 3일간의 모임 이후 참된 예배 센터 교회에 출석하며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슬람 성직자 통해 개종 사실 인지 가족의 폭행으로 이어져

그의 기독교 개종 사실은 진자 모스크의 이맘인 키시게 무사타파를 통해 28세 장남 키바리케 부달라에게 알려졌다. 과거 아부무사와 전도 집회에 동행했던 이맘이 개종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즉각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귀가하자 장남 부달라는 이슬람을 떠난 것을 질책하며 그를 이교도로 지칭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목격자 엘리스 나이가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부달라는 아버지가 이슬람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위협한 뒤 막대기로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다른 네 명의 아들까지 합세해 아부무사에게 폭력을 가했다. 나이가가는 원거리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한 뒤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부무사는 코에 출혈이 발생하고 손과 다리, 등 부위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나이가가는 폭행 당시 부달라가 이슬람을 떠난 자를 처단하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이슬람 교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병원 치료 후 타 지역 도피 우간다 기독교 박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아부무사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강가 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그는 아들들의 추가적인 보복을 우려해 다른 마을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지난 2022년 사고로 아내와 사별한 그는 가



©ChatGPT

족들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 현지 경찰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현지 매체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우간다 기독교 박해의 연장선에 있다. 우간다 헌법과 관련 법률은 신앙 전파와 타 종교로의 개종을 포함해 명시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 전체 인구의 약 12퍼센트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이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을 겨냥한 폭력과 사회적 배척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정점식 “헌 정부와 개헌 논의 안 해”… ETF 특검 촉구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부동산·재정·대북 정책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며 헌 정부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 “공소취소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우기”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거론하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공소기각 내용을 포함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으며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실패할 경우까지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정 요구도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두고는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세력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부동산ETF 정책 비판… 재정 확대에도 공세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제한과 대출 규제, 세금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실제 정책이 반대라며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뒤 페버스 개조와 고시원 욕조 설치 등을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손실이 56조 원 이상으로도 추산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그는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외에 뒷선이 있었는지,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야 한다고 말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8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로 200조 원 이상을 확보했는데도 신규 국제 106조 원을 추가 발행하려 한다며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핵억제력 강화·세제 개편 등 정책 제시

정 원내대표는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햇볕은 핵이 되었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해체와 군 경계태세 문제를 거론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통해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를 ‘국민암장정부’라고 비판하며 안전자산·권라주거 사다리노후·재정·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를 제시했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도 약속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과 사회보험의 국가 간 상호주의 도입, 군 복무 경력 인증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신약 청탁 의혹’ 녹취 공개… 특검 촉구

브로커업체 대표 통화서 정치권 인맥 거론…임상 승인·정부지원금 논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출석 요구에 “증인이든 청문위원이든 불러달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다. 한 의원은 녹취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 정치권 인사들이 언급됐으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취록은 양씨와 강씨가 2021년 9월 나눈 통화 내용이다.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과 정부지원금 신청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정치권 인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 임상 승인·정부지원금 논의… 양씨, 정치권 인맥 거론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는 “원래 24일 이전에 IND 승인을 받아내야 우리가 24일 신청하는 게 있어. 정부지원자금을”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교수님,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안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돈 안 드는 행위는 도와줘요”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재성 전 수석과 당시 식약처장의 친분을 거론하며 최 전 수석이 문제인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과 한병도 의원, 한 의원과 송영길 의원 사이의 친분도 언급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자료를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움직여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강씨는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빨리해 달라는 거니까”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달 4일 통화에서 강씨는 “민주당 이런 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조금 이제 승인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15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우연한 만남에서 나올 대화인가”… 수사 촉구

한 의원은 녹취를 공개하며 “우연히 만난 최 전 수석에게 양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네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치권에 부탁해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고 이익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좋은 민원이나 ‘공익민원’으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청탁을 전달한 뒤 2주 만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처분 경위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의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개입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민주당 비판에 반박… 김승원 청문회 출석 의사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이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없으니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한다”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 불러달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께 요청한다. 증인이든 청문위원이든 불러달라”며 “김 후보자가 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검찰,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 수사 착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억원 금융위원장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위험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

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같은 달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추진·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당시 김 전 실장

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품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밀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돼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위험성 검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용국 기자

검찰,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동시 압수수색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 경찰청 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서부서 서장실을 비롯해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제주경찰청 형사과, 경찰청 본청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담당 부서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

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인 제주서부서 실종팀 소속 부 모 경장(30대)이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서는 이날 오전 11시에 취해진 이 물리자 실종팀 사무실이 있는 별관 통합당직실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계자만 출입하도록 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도 발견한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신고가 해당 사건이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씨는 55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장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송차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는 실종사건 25건을 허위로 종결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용국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든갈 수 있어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조직 조기 안착… 중대범죄 대응 빈틈없게”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과거 수사권 박탈 반대 입장 등 소명 예고
초기 인력 확보 우려에 “국민 걱정 없도록 최선”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며 신설 조직의 조기 안착과 빈틈없는 중대범죄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청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형사사법 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 중수청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 과거 수사권 박탈 반대 입장에 “청문회서 소명”

김 후보자는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중수청장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협력·경계 방안 역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재직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같은 지역

의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비거주 1주택’ 관련 질문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첫 출근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미뤘다.

◆ 초기 인력 확보 우려에 “수사 과정에서 역월한 국민 없도록”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쳐 출범 초기 수사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조직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며 “국민께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역월해하는 국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공주대 부설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정

부 시절인 2021년 춘천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자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수청에 지원한 4~7급 검찰 수사관 10명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파견 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박용국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청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 상승… 국내 기름값도 불확실성

브렌트유 97.73달러 마감… 장중 약 6주 만에 최고치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생산시설·수송망으로 공격 확대 여부 주목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최고가격제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름값도 중동 사태의 확산 여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움직임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1.5% 오른 배럴당 97.73달러에 거래

를 마쳤다. 장중에는 97.93달러까지 올라 약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국내 원유 수급 영향은 제한적

국제유가 상승에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됐다.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공급 불안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시설도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하루 약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가동 차질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람코의 한국 법인인 아람코코리아도 현지 피해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격된 곳이 원유 생산시설이 아닌 정유시설인 만큼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스오일 역시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정

제하기 때문에 이번 피격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생산시설·수송망으로 공격 확대 땀 추가 상승 가능성

향후 유가의 주요 변수는 중동 지역의 충돌이 추가로 확산할지 여부다. 원유 생산시설이나 수송망까지 공격이 확대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 기름값은 현재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0당 1859.2원, 경유 가격은 1843.6원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움직임도 국내 가격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혔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석유제품 가격까지 오르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기름값에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체 손실 보전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달까지 정유사들의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에 첫 정산액을 산출할 전망이다.

이나라 기자

은행 주담대 연체액 2.2조… 3년 반 새 2.2배로

대출 잔액 21% 늘 때 연체액 120% ↑… 장기 연체도 확대
전북은행 연체율 반년 만에 5배 “취약 차주·집단대출 점검해야”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이 3년 반 만에 2.2배로 늘어 2조2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보다 연체액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 연체가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약 21% 증가했다.

◆ 연체액 증가율, 대출 잔액 증가율의 약 6배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주담대 연체 잔액은 같은 기간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20% 늘었다. 연체액 증가율은 전체 대출 잔액 증가율의 약 6배에 달했다.

연체 잔액은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9000억원, 지난해 말 2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장기 연체도 늘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4000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비해 적립한 대손충당금도 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세 배가 됐다.

◆ 농협은행 연체 잔액 최대…전북은행 연체율 급증

은행별로는 올해 6월 말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연체 잔액이 5117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680억2000만원, 우리은행 3419억6000만원, 하나은행 3026억6000만원, 신한은행 2168억8000만원 순이었다.

전북은행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0.19%였던 주담대 연체율은 6월 말 0.95%로 반년 만에 다섯 배가 됐다. 연체 잔액도 52억6000만원에서 328억1000만원으로 523.8%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의 연체 증가에 대해 올해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연체율이 높아졌다. 경남은행은 2022년 말 0.14%에서 올해 6월 말 0.4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은 0.14%에서 0.43%로, 수협은행은 0.17%에서 0.45%로 올랐다.

박성훈 의원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와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집 보러 갈 때도 비용? ‘임장비’ 논란 재점화

공인중개사협회
“확정된 추진계획 없어”…
국토부 “현행 부과 근거 없다”

부동산 매물을 둘러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비용을 내는 ‘임장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도 도입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중호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원거리 이동 등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임장 기본보수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투자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

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기존 중개보수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임장 크루 문제에 대한 회장 개인의 생각이었으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협회 차원의 기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거나 국토부와 협의하는 단계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중개보수 자체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장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와 관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매물 현장

안내 자체에 별도 정액 보수를 부과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임장비를 먼저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제도화로 이어지는 않았다. 관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일부 실비를 받지 않는 관행이 무료라는 인식을 굳힌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어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되는 만큼 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와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중심의 중개보수 체계를 손질해 기본 수수료에 관리관계 검토 등 추가 업무 비용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나라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Brity Copilot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우리 신앙을 갇아먹는 ‘기능적 은사중지론’의 7가지 징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9월 4일(현지 시간) 조셉 마테라 목사(사진)의 기고 ‘은사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사중지론자일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 내용을 축약한 글이다.



여기서 ‘은사중지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의 직분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적 입장이거나 실제적 태도를 가리킨다(엡 4:11; 고전 12:4-11).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진영은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지속되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달리 실제 삶과 사역에서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능적 은사중지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복음주의적 합리주의’자는 성경의 핵심 진리와 초자연적 사건을 믿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특정한 사역이 오늘날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다. 때로는 모든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신앙의 신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부활과 신자의 거듭남이 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축출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역의 지속성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는 데 있다.

1. 에베소서 4장 11절의 사역 직분을 중시된 것으로 여긴다

은사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다양한 사역의 기능을 언급한다.

이 가운데 일부 직분이나 기능이 오늘날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사역 직분의 영역에서는 은사중지론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 기능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실제로 인정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2.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음을 부정한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성령을 통해 개인에게 특정한 감동이나 인도하심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면, 이 영역에서도 은사중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셈이다. 이를 조명, 감동, 계시 등 무엇이라 부르든 핵심은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가에 있다.

일부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 정경의 완성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에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문맥에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말하며 현재의 부분적 지식과 이후의 온전한 앎을 대조한다(고전 13:12). 예언과 방언뿐 아니라 지식도 폐해진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을 정경 완성 이후 특정 은사만 중단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문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3. 예언을 교리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기대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전 14:4, 29-31).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까지 지속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인정하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전혀 기대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언의 영역에서는 기능적 은사중지론에 머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예언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적 분별과 질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세다. 은사를 인정하는 고백과 실제로 그것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일은 다르다.

4. 방언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필자는 여러 오순절 교단 지도자들에 게서 젊은 목회자와 성도 중 개인 기도예

서 방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자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설명한다(고전 14:2-4).

스스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라고 하면서도 방언을 신앙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영역에서는 은사중지론적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신자가 동일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은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교회 전체가 이를 사실상 금기시하거나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경우다.

5. 신유를 믿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병자를 위한 기도와 치유가 기록돼 있다(눅 10:1-9, 약 5:13-15).

그런데 일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조차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데 소극적이다. 신유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사역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능적 은사중지론에 가까워질 수 있다.

모든 치유 기도가 즉각적인 육체적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만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6. 귀신 축출 사역을 특정 전문가에게만 맡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

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라고 보고했다(눅 10:17-20). 야고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다(약 4:7).

그럼에도 많은 오순절-은사주의 신자들은 귀신 축출, 이른바 ‘축사’ 사역을 불편해하거나 특별한 사역자만 담당할 영역으로 여긴다.

이 사역을 무분별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서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관점에서 성도들은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영적 대적이라는 성경적 개념 자체를 배제한다면 이 역시 기능적 은사중지론의 모습일 수 있다.

7. 성경 해석에서 성령의 현재적 조명을 배제한다

필자는 성경 저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도록 돕는 역사적-문법적 해석 방법을 훈련받았다. 이 원리는 중요하지만, 학문적 방법론만으로 성경 해석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성령의 조명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4:26), 요한일서도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신자들을 가르친다고 전한다(요일 2:27). 역사적-문법적 해석을 충실히 사용하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해석학에서도 기능적 은사중지론에 빠질 수 있다.

성령의 조명은 본문의 의미를 바꾸거

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허가증이 아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역사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크레이그 키너의 『성령의 해석학』과 필자의 『나의 해석학』을 참고할 수 있다.

◆교단의 이름보다 실제 신앙이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특정 교단을 비판하거나 ‘진짜 은사주의자’의 자격을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성도들이 어떤 신학적 이름 아래 있는 삶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기대하는지 돌아보도록 돕는 데 있다.

오순절파라는 이름이 은사의 실천을 보장하지 않으며, 은사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령의 현재적 역사를 부정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다.

말씀과 성령은 경쟁하지 않는다. 성령은 자신이 영감하신 말씀과 오순절계 역사하지 않으며, 말씀도 성령의 역사와 분리된 정보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필자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삶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행 1:8).

교회의 목표가 초자연적 현상 자체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현재적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역시 돌아봐야 한다.

다니엘 최 기자

탱크보다 치명적인 ‘러시아 제국주의 2.0’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토니 퍼킨스(사진)의 기고글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토를 넘어 ‘영적 전쟁’으로(Putin’s war on Ukraine isn’t just territorial, It’s spiritual)’를 9월 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주택과 학교를 파괴했고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의 무기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또 하나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함에 의한 국경 변경과 종교적 억압, 강제 동화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다면 그것은 유럽 전체의 안보와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푸틴 체제의 제국주의는 과거 소비에트 권위주의의 요소를 상당 부분 이어받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공산주의 시절 국가에 의해 압박받았던 러시아 정교회가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과 긴밀히 결합해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국가 이념으로 대체하려 했다면, 오늘날의 푸틴주의는 기독교의 특정한 형태를 국가 권력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종교 활동이 억압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져 왔다. 일부 교회는 폐쇄됐고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됐으며,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반면 모스크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 정교회 계열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음주의 교회와 가톨릭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강제 폐쇄를 당했고, 예배당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데니스 울리우틴(Denys Uliutin) 사회정책가족-통합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과 점령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종교 시설들이 어떻게 훼손되고 파괴돼 왔는지를 설명했다. 수백 개의 종교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는 보고가 있으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역시 점령지의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점령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와 성직자들이 살해되거나 고문 끝에 숨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교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 국가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종교 공동체를 억압하고, 특정 종교적 구조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종교의 자유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틴 체제의 영향은 종교 기관에 대한 억압에서 끝나지 않는다. 점령 지역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문화와 국가 정체성 안으로 강제 편입하려는 정책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점령지의 일부 학교에서는 러시아식 교육과정도 도입됐고 러시아어 사용과 러시아 역사관이 강조됐다. 러시아 시민권 취득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 이주와 추방이다. 수천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는 이른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러시아 가정에 입양·위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어린이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는 싸움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 세대의 기억과 정체성을 누가 형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 국가의 강요 없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전수할 자유는 단순한 사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억압과 아동의 강제 동화 정책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미국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서방 사회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면 교회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다.

동시에 시민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역사는 침략과 억압이 성공적인 선례로 남을 경우 그것이 다른 지역에 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군사적 침략과 종교적 억압, 강제 동화가 별다른 대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과연 자유로운 국가들에게 더 안전한가”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자유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종교적 박해와 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당한 방식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키려는 것이 단순히 지도 위의 영토만이 아니라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조국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자신의 신앙과 문화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 그리고 스스로를 통치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특정 국가만의 가치가 아니다. 신앙의 자유, 가족의 자유,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스스로 통치할 권리는 자유사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닌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쌀 소비 촉진

법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아침밥 먹기로 시작하세요!

농협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선교적이어야 선교적일 수 있다”



[서평] ACTS 1881
(홍문수, GOMINS, 2026)

◆들어가기(서론): '복음이 일으키는 소리 없는 강력한 파문', "이런 책이 마침내 나왔구나"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의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선교하는 교회의 자세한 매뉴얼을 보여 주는 책이 있을까?” 왜 책이름이 ‘ACTS 1881’ 일까? 한마디로, 좋은 책, 강추하고픈 책이다.

목자의 5개 장에서 저자는 제목과 각 장의 핵심내용을 멋지게 요약하였다(pp. 20-21) 특이한 목자가 신선하다.

◆제1장: 내 목회의 감사패, 미셔널 신반포교회의 7가지 강점
“35살 나이에 ‘어쩌다’ 담임목사)이 됐습니다. 말려 주인 주님의 몸 신반포교회를 섬기며 34년을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교회의 교인보다 제가 더 많이 변했고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 예배와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된 제가 런닝화 끈을 풀면서, 미셔널 신반포교회를 자랑합니다.”

◆2장: ‘믿습시다’로는 부족하다, ‘미셔널’(missional)로 거듭났다

“목회를 ‘어떻게’해야 할지가 아니라 목회가 ‘무엇인지’몰라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하였고, 고민 끝에 그 교회가 안디옥교회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밀고 가는 하나님 선교의 중심원(centric circle)을 말씀에서 찾아와 목회에서 실천하면서 신반포교회는 미셔널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선교의 뼈대 세우기 1: 선교적으로 선교 읽기

◆3장: 더 많은 일이 아니다, 교회론과 사역 철학이 바뀌었다

“미셔널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 가운데와 세워졌음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 제자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임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뼈대 세우기 2: 풀뿌리 선교적 교회

◆4장: 주춤거렸다면 다시 뛰자, 더 좋은 선교 생태계가 오고 있다

“교회가 힘이 빠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각자도생 외에 세계 선교나, 복음 증거나, 신경을 안 쓴다... 조금만 시간을 달리해 보면 지금이 미셔널 교회의 적기입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IT와 AI가 시간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교류, 이주 등으로 어느 때보다 미셔널 정신을 실천할 호기를 맞았습니다.” 선교의 뼈대 세우기 3: 선교사,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

◆제5장: 미셔널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20가지 에센셜 팀

“미셔널 교회에도 예배,양육,훈련,교제,돌봄과 베품이 필요합니다. 미셔널 교회는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라는 두 개의 북엔드(bookend) 사이에 예배,양육,훈련,교제,돌봄과 베품이라는 교회적인 요소들을 균형있게 끼워 넣어 세울 줄 아는 교회입니다. 지난 34년간 미셔널 신반포교회를 목회하며 체득한 미셔널 교회 목회론을 질문과 응답 형식을 빌

려 소개합니다.” (본 서평독자들에게 20가지 에센셜 팀을 소개할 수 없어 아쉽다)

◆1. 내 목회의 감사패: 미셔널 신반포교회의 7가지 강점

저자는 34년 신반포교회를 목양하면서 신반포교회의 DNA가 된 7가지 특징을 요약하였다. 첫째, 복음주의 개척자 정신으로 걸어온 교회/둘째, 사역할 줄 아는 평신도들이 포진한 교회/셋째, 사역하는 장로들이 큰 몫하는 교회(Elder-Led Church)/넷째, 시작한 선한 일들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교회/다섯째, 교회 앞날에 관해 늘 현명한 선택을 해온 교회/여섯째, 실현적이지만 전통의 자연스러운 계승을 존중하는 교회/마지막 일곱째, 시류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본질적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

서평자는 신반포교회의 7개의 강점 DNA 중에서 첫번째(복음주의 개척자 정신)와 네 번째(꾸준한 선교기도회)를 주목하였다. 홍문수 목사는 대학시절 캠퍼스 개인전도로 영혼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 아는 전도자였다. 34년 목회도 이런 정신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 감당하였다. 기도도 아뢰고 응답 받았고, 확신이 들면 곧장 피칭(pitching) ‘복음과 관련된 일에는 단 한번도 실리나 효과를 따지지 않는 담력을 주셨다. 34년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 신반포교회 역시 (무모함과는 거리가 먼) 과단성 있는 교회가 되었다”(pp. 26-27)

꾸준한 개인전도 무장된 개척자 정신과 꾸준한 선교기도회가 오늘의 신반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선교기도회를 34년 동안 1,785회, 선교축제는 35회를 꾸준히 하는 저력 있는 교회(2026년 5월 현재)” (p. 29) ‘시류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본질적인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교적 목회의 정도(正道)이다.

◆2. ‘믿습시다’로는 부족하다, ‘미셔널’(Missional)로 거듭났다.

신반포교회는 서울역 근처 갈월동에서 설립되어 1978년에 신반포로 이전한 전통적인 장로교회다. 홍문수 목사는 1988년 11월부터 부목사로 사역 중 당시 담임목사가 돌연 사임하는(1991년) 바람에 어쩔 겨에 ‘어답’(어쩌다 담임목사)이 되었다. ‘1년 임시목사로 시작, 1년후 공동회의에서 97% 찬성표로 담임이 되어 34년간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요, 하나님?” 어제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다 어답이 되었을 때 다윗처럼 매사를 하나님께 물었다. 계속 기도하던 중 나만 아니라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해야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점점 참석인원이 늘어서 부활절 새벽 예배엔 주일 출석교인의 절반이 참석하였다. 교회적으로 2가지 결핍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는 교회적으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에 선교 ‘의식’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2가지 깨달음’이었다.

◆행1장 8절, 8장 1절의 대전환(ACTS 1881) ‘행29장은 네가 써라’

홍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 모델을 찾아서 그 교회를 따라 하면 그게 잘하는 목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지만 말고 찾아서 그렇게 행하라” (p. 49).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교회처럼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라’ 주님의 감동을 따라 읽던 중에 선교의 건강한 모델교회는 안디옥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교회를 넘어 안디옥교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당시 1990년대 초반의 교회 구조로는 선구자적이었다)

◆신반포교회 ‘귀뚜라미 보일러 선교’ 정착 시점

1992년부터 <선교한국>에서 벤치마킹한 제1회 <선교축제>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선교를 기초부터 공부하자’는 각성이 전 교인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이 선교축제는 홍목사가 은퇴하기까지 35회 개최되었다. 초기의 단기선교에 새 길

을 열어준 분은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앞장서서 “가보라!” 대대적인 지원과 설교와 공기도로 한층 더 교회의 선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신반포교회의 “귀뚜라미 보일러 선교” 준비시절. “오래전 TV광고에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해서, 불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한 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또 한 번 보일러를 데운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 광고 문구대로, 신반포교회의 선교는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타올랐다”(p. 63, 신반포교회의 선교는 ‘귀뚜라미 보일러’ 선교로 활성화처럼 타올랐다)

◆한국 최초의 불한성경(2013년) 불어권 무슬림선교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홍문수 목사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 목사 안수받기까지 대학에서 불문학을 강의했다. 전국대학의 불문과 교수들의 자원봉사와 선교회 중심 교정위원과 석박사 학생들(50명) 5-6년 편찬작업. 불문학을 공부하다가 신학교에 가면서 집안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다.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이 성경의 발췌인도 나였고, 간행사도 내가 불어로 썼다. 불문학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폐품을 활용하시는구나 싶어 감개무량했다”(p. 78)

“1993년부터 시작해서 장단기 선교사를 2026년 현재 117까지 파송했다. 우리교회의 교세를 볼 때 정말 놀라운 숫자다. 단기, 장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경우가 꽤 있어서 현재 현지 필드에는 4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74명의 협력선교사와 28개의 선교협력기관이 있다. 파송선교사 중 약 10퍼센트는 본래 타 교회에서 파송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파송이 해제된 후 우리 교회가 영입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90퍼센트는 우리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길러진 선교사들이다.”(p. 81, 그래서 신반포교회는 ‘선교교회의 모델’이다)

◆3. 주춤거렸다면 다시 뛰자, 더 좋은 선교 생태계(IT와 AI)가 오고 있다.

이제는 선교를 안 해야 할 이유를 양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층의 청년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철저히 자기 삶에 매몰 돼있다. 진학·졸업·취업·결혼·자가 주택 구매에 꼭 매여 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다. 솔직히 한국교회에 담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신반포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가 계속 생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풀뿌리 선교적 교회’ 축적된 에너지의 선순환적 방출

건강한 삶을 살기위해서 운동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도 꼭 같다. 교회에서 일하고 운동해야 한다. 사역의 필드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가 안에서 남으면 할 것은 싸움밖에 없다. 지역교회에서 수행하는 ‘선교는 풀뿌리 모양이 돼야’ 한다. 그것은 마음 깊은 데에서 ‘선교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선교가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서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교회 대표로 몇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 스타 플레이어 몇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닌, 온 성도가 “가는 선교사/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대리선교/대신선교는 그만! 전 교회 성도가 함께 움직이는 선교가 곧 풀뿌리 선교다.

◆‘풀뿌리 선교’는 곧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대리선교/대신선교는 그만!’

구호만 요란한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솔직히 1980년대에 한국교회는 선교구호가 요란하였다. 그 당시 서평자는 총신대학 선교연구소에서 3.5년간 사역하였다. 교회 차량도 ‘선교 차량’, 교회유치원도 ‘선교유치원’이었다. 구호는 요란하였으나 한국교회의 선교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선교연구소는 3개월마다 <세계 선교>(계간지) 특집을 발행했다. 내실 있는 선교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나가는 말(결론): “선교하는 교회가 정상적 교회(normal church), 선교 안 하는 교회는...?”

‘ACTS 1881’ “행 1:8에 불순종하면 행 8:1 꼴이 된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우주

적 교회(universal church)이며 동시에 지역교회(local church)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한 마디로 ‘내 교회, 남의 교회의 벽이 낮고 낮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단의 벽이 너무나 높다. 성경적 정상적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에서 하나된 유니티(unity), 코퍼레이션(cooperation)을 지향해야 한다. 가까이 있는 이웃 교단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야 한다. 신반포교회와 지근거리에 남서울교회가 서로 비교의식 없이 서로 협력한 시너지는 너무나 아름답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모든 성경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다. 선교적 교회는 구조로 단시간에 세워지지 않는다. 목회자가 선교적이어야 선교적일 수 있다. 신반포교회 선교 이야기는 홍문수 목사의 탁월한 선교적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서평자는 홍목사의 3가지 선교적 리더십이 오늘의 ‘복음이 일으키는 소리 없이 강력한 파문’ 신반포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그가 앞서 밝힌 대로 자신의 ‘복음주의 개척자 정신’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곧장 피칭(pitching)하는 과단성(果斷性)과 꾸준하고 올곧은 순종이다.

둘째는 그는 끊임없이 성경공부와 선교

를 계속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본서에 2장과 3-4장 뒷부분에 <선교의 뼈대 세우기> 1, 2, 3(60여 페이지), ‘책 속의 책’이 그 증거이다. 서평자는 평생 선교를 연구하였고 선교학을 수십년간 강의하였다. 특히, <선교의 뼈대세우기 2> ‘선교적 교회론: 풀뿌리 선교적 교회’(pp. 147-151)는 저자의 34년 목양현장에 검증한 선교적 교회론이다. 한국교회 선교계와 신학교에서 교과서가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교하는 교회가 ‘정상적 교회(normal church)’,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비정상적 교회(abnormal church)’라는 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목회’를 하였다.

‘ACTS 1881’ “행1:8에 불순종하면 행8:1 꼴이 된다.” 따라서 저자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이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성장해야 선교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선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p. 210)

독자들 중에 ‘미셔널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20가지 에센셜 팀(pp. 219-259)은 본서의 보너스 같은 선물이다. 34년 선교적 교회를 목양하며 한국교회와 후배와 동역자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주는 저자의 자상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다. <할렐루야>

◆서평후기: ‘기본으로 돌아가자(Ad Fontes)’

‘ACTS 1881’ 생동스러운 책 제목이 선명하고 썸박하다. “한 목회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꽃피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 과정을 이 책을 통해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한철호 미선파트너스 대표).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행1:8에 불순종하면 행8:1 꼴이 된다.” 사도행전의 분명한 경고 메세지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직도 휘청거리는 한국교회를 위협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본다.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선교의 방향을 바로잡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새롭게 선교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Ad Fontes)’ 곧 ‘풀뿌리 선교적 교회’가 답이다. 서평자도 오래전부터 저자와 똑같은 목소리를 부르짖어왔다.

신반포교회 홍목사님은 서평자가 총신대 선교연구소를 맡아 섬길 때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1991년 당시 홍문수 목사님은 34세에 ‘어답’(어쩌다 담임목사)이 되어 어수선했을 때인 데도 선교연구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그후 36년이 흘렀 지났다. “홍목사님과 신반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앞에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의 실체적인 (목회)매뉴얼인 본서를 출판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플류 LX 판토스

프리미엄 인테리어 LX 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유리 솔루션 LX 글라스

어떤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성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속에는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흔히 겉모습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움은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성품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쓴 뿌리가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에는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의 밑바닥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과 인내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즉시 주시기보다 때로 시간을 통해 빚어 가십니다.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며, 지혜입니다.

어떤 것들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뒤 매일 땅을 파헤쳐 보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햇빛과 비를 통

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계절을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숭배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빨리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빨리 성숙하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빨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언제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자라는 것보다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함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따게 합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다렸습니

다.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돌아켜 보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었습니다.

인내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루실 일을 믿으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쌓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늦추심으로 우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응답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기도를 깊게 하십니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사랑을 깊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성품을 깊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기다림을 견디십시오. 기다림을 사랑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전 3:1). 아름다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빚어집니다.

예배



구봉주 목사
감사한교회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천들 사이에 “삶이 곧 예배입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장의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삶의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경배하는 ‘모이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 오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크리스천답게 선과 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의 본분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 곧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특별하게 거하십니다. 이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소 부재하심’과는 또 다른, ‘임재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의 임재를 두십니다.

그렇기에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식여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영적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거대한 문제들이 예배 시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문제 자체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임했을 때 평양과 선천이 그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선천에 부흥이 임했을 때에는 주일과 장날이 겹치면 장이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느라 장을 보는 사람이 없었

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요일을 ‘주일’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오직 ‘예배 중심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예배가 위상상배로 더럽혀지거나 폐쇄당하는 시련이 있었고, 해방 이후 북한 공산정권 아래에서 예배가 강제로 중단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데믹이 지나간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그 어떤 외부의 강압이 없음에도 스스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풍조에 몰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하나 둘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쉼과 가족과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핑계 뒤로 숨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분주해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과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줄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적 바람이 우리 감사한교회에 다시금 뜨겁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와 군사 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펄백

2026년 8월 29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날이었다. 1876년 8월 29일 태어난 백범은 1949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150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25년 제43차 총회에서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한국 인물로는 정약용, 김대건 신부에게 이어 세 번째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꿈꾼 평화와 문화의 가치였다.

마침 국민일보에는 우성규 종교부장의 ‘백범의 사무사’가 실렸다. ‘사무사(思無邪)’는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뜻이다. 백범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깊이 다가온다. 그의 생애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삶이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동학에 입교했고, 치하포 사건으로 투옥과 사형 선고를 겪었다. 탈옥 후 마작사에서 출가하기도 했으며,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

여 교육과 계몽운동에 힘썼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국무령을 거쳐 주석에 올랐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이끌었고,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힘을 보탰다. 해방 후에는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암살당했다.

백범은 독립을 단순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주독립과 민족통일,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을 함께 꿈꾸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 독립된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의 신앙 역시 삶의 장식이 아니었다. 유교와 동학, 불교를 거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고백했다. 신앙은 조국 사랑과 이웃 사랑, 희생과 책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백범을 오늘 다시 읽게 하는 가장 놀라운 대목은 정치보다 문화다. 그는 강한 나라를 원했지만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

라고 했다.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족하고, 경제적 부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나라를 꿈꾸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라. K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음식과 한글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백범이 1947년 「나의 소원」에서 꿈꾸었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범 탄생 150주년인 오늘, 그의 질문은 정치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남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진영의 승리보다 국민을 권력보다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물음이다.

만약 백범이 해방 직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소 대립과 좌우 갈등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의 뜻만으로 분단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세계를 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강한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지만, 아름다운 나라는 문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백범이 남긴 가장 오래된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첩에 남긴 마지막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으로

기아대책, 16일부터 유산기부 전시회 ‘사랑으로 기억될, 삶’ 개최
인사아트센터서 후원자 소장품 35점 선보여…
가족과 이웃에게 이어진 사랑 소개

“배고프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도움
이 됐으면 합니다.”
고(故) 설순희 후원자가 생전 수첩에
남긴 마지막 기도는 카메라에 ‘무지개행
복초등학교’를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고
인의 뜻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아들이
어머니의 1주기를 맞아 유산기부를 약정
했고, 이후 며느리와 두 딸도 동참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오
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 중
로구 인사아트센터 6층에서 유산기부 전
시회 ‘사랑으로 기억될, 삶’을 개최한다. 설
순희 후원자를 비롯해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신앙, 가족과

이웃에게 이어진 사랑을 소개하는 자리
다.
전시에서는 후원자들이 오랫동안 간직
해 온 수첩과 사진, 편지, 감사장 등 개인
소장품 35점을 선보인다. 기아대책은 유
산기부를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사랑을 다음 세대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가는 선택”으로 조명한다고
밝혔다.
◆ 어머니의 유산은 우물로, 딸의 결혼
축의금은 유치원으로
설순희 후원자가 마지막 기도를 기록
한 수첩과 젊은 시절 사진은 한 사람의
나눔이 가족의 실천으로 이어진 사연을

전한다. 기아대책은 “이 한 줄의 기도는
카메라에 ‘무지개행복초등학교’를 세우는
씨앗이 됐다”며 유가족도 고인의 뜻을 따
라 유산기부에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이웃과
나눔 이경에 후원자의 이야기도 소개된
다. 이 후원자는 유산으로 아프리카에 우
물을 세워 현지 주민들에게 식수를 지원
했다. 전시장에는 이후 현지에서 보내온
감사장과 손수 만든 조각품이 전시된다.
유영주 후원자는 딸의 결혼 축의금으
로 토고에 유치원을 건립했다. 가족의 기
쁨을 다른 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간 것이다. 당시 결혼식 현
수막과 현지 아동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사연을 살펴볼 수 있다.
오랜 후원의 기억을 간직한 사진도 선
보인다. 박연향 후원자는 1994년 흑백사
진으로 처음 만난 아동을 9년 동안 지원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

했다. 세월이 흘러 소장품을 정리하면서
도 후원 아동의 사진은 버리지 않고, 나
눔의 순간을 유산으로 남기기로 했다.
임자영 후원자의 가족사진에는 104세
고조할머니부터 두 살배기 딸까지 5대가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기아대책은 가족
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도 자란해 어

머니와 마찬가지로 나눔의 길을 걸기로
했다며, 세대를 잇는 나눔의 의미를 소개
했다.
◆ 소천 이후에도 이어진 아동 후원과 선
교사 섬김
선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향한 마
음을 유산기부로 남긴 후원자의 사연도
전한다. 고 이화자 후원자는 암 투병 중
자카르타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
을 떠올리며 유산기부를 결심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은 조의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인도
네시아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고 최송혜
고 최혜숙 후원자가 남긴 공간은 타지에서
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활용
되고 있다.
기아대책은 후원자들의 소장품을 통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왜 유산
기부를 결심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한 사람이 지켜온 신념과 소명이
가족과 이웃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전시해 담겠다는 취지다.
전시 첫날인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언론을 대상으로 미디
아데이가 열린다. 박재범 기아대책 부회장의
인사말과 해리티지 클럽전시회 소개,
질의응답에 이어 주요 전시품에 담긴 사
연을 들려주는 도슨트 투어가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 9월 22일과 25일은 휴관한
다.
한편 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다. 경제적사
회적·정서적·영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
웃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국내복지와 국
제구호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400여 명의 기대봉사단을 파견해 활동하
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2024년 10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에서 어린이들이 국제구조위원회와 레고재단의 놀이 기반 학습을 통해 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단체 측 제공

국제구조위원회-레고재단, 놀이 통해 교육 중단 어린이 15만 명 돕는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한국 대표: 이은영)가
분쟁과 빈곤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15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에티오피아 놀이
기반 학습 프로그램(Playful Education
Pathways in Ethiopia:PEPE, 이하 PEPE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PEPE 프로그램은 국제구조위원회와
레고재단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두 단체는 2019년부터 위기지
역 어린이의 학습과 발달,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동아프
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어린이 500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미화 9,700만 달러 규
모의 5개년 파트너십을 새롭게 체결했다.
그 일환인 PEPE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시
작한 초기 평가 단계를 완료하고, 8월부
터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와 암하라 지
역 34개 행정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PEPE 프로그램은 놀이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분쟁과 빈곤의 영향으로 학업
이 중단된 어린이들의 학습 수준과 상황
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하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기초 학습 역량을 회복해 정규 교육과정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안
문제로 학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공간에서 배
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메리 윈터스 레고재단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분쟁으로 교육이 중단되면 어
린아들은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장
에 중요한 안정감과 유대감, 그리고 기쁨
까지 잃을 위험에 처한다”며 “PEPE 컨소

시엄은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유
연한 교육 경로를 구축하고, 학습과 놀이
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구조위원회와 레고재단은 PEPE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지역 어린이들의 교육 접근
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분쟁과
위기의 영향을 받는 더 많은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니엘 최 기자

땀새간 힘 모은 집짓기…춘천 여섯 가정에 보금자리

한국해비타트, 제16회 한국번개건축 진행…땀새간 125명 참여
무주택 신혼부부 등 위한 주택 6개 동 건축…11월 준공 예정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
트가 춘천 지역 무주택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짓
기에 나섰다.
한국해비타트는 9월 1일부터 5일까
지 ‘2026 희망의 집짓기: 춘천’ 사업 현
장에서 ‘2026 한국번개건축(Korea Blitz
Build:KBB)’을 진행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매일 25명씩 땀새간
총 12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2층 단독주택 6개 동을 짓
는 현장에서 목골조 공사와 단열재석고
보드 시공 등 내부 마감 공사에 힘을 보
탤다. 주택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등 여섯 가정
에 지원된다.
한국번개건축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입주 가정이 함께하는 대규모 특별 건축
봉사 프로그램이다. 한 장소에서 3~5일
간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봉사자

들은 집짓기와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여
한다.
국내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01년 방한해 전 세계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봉사자와 건축봉사를 펼치면서 알
려졌다.
이번에 처음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땀 흘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
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의 집짓기’는 입주 가정이 건축 원



기침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한국해비타트



건축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가를 장기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상환금은 화전기금으
로 조성돼 다음 무주택 가정의 주택 건
축비로 다시 사용된다.
한국해비타트 마희자 이사장은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나
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귀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신 125명의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
혔다.
‘2026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는 대한항
공, 한국씨티은행, 세움코리아, 이튼, K2
Safety,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크나우프

석고보드,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가
후원기업으로 참여했다.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 스왈록아시
아, 라카이코리아, 멘톨로지, 이엑스헬스
케어, 가히, 동서식품, 파워에이드, 산E&C
건축사사무소도 후원에 동참했다.
다니엘 최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범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대표 김 덕 겸 목사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북대교회 청복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께서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감행감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풀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성경의 역사 2C 말까지의 신약성서의 정경화

신약성서는 어떤 사본에 근거하고 있는가

1. 원시 기독교에서 권위있는 책들
예수와 원시 기독교는 결코 성경이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물려받았으며 후에 구약 정경이 된 세부분 모두에서 인용되었다.

람비들에 의해서 주후 1세기에 성경으로 규정된 39권의 마소렛 판의 정경은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원시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한정된 정경이나 배타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고전 15:1f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원시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살아있는 규범은 우선 주님을 위시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갖고있던 교회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2. 사도이후 시대에서 정경화 과정의 예비적 단계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표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며 오늘날까지 클레멘스 1서나 이그나티우스 서신이 쓰여진 복음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견해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한 2세기 초까지는 소아시아에서 알려졌었던 바울 서신들의 수집이 끝났고 이러한 수집은 이미 마르시온의 정경에 있던 10통의 편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

었을 가능성이 높다.

2세기 중엽쯤에는 상황이 바뀌어져 갔는데 클레멘스 2서와 130년대에 기록된 폴리카의 서신의 주요 단락들이다.

사도시대 이후로 이러한 저작들의 수집과 병행해서 2세기 중엽에는 “성경”이 형성되는 예비적 발전이 있었다.

소위 클레멘스 2서는 교회의 기원이 위에서 부터 온 것이라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것으로서 를 들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본문의 가장 타당한 의미에 따르면, 그는 사도들을 구약성서와 나란히 살아있는 권위로 놓았던 것

3. 2C 후반부에서 정경화의 시작

Justin이 4복음서 정경을 알고 있었는지는 증명될 수 없고 Justin 에 의하면 인용된 몇 가지 조화를 이룬 공관 복음서의 본문들은 그에게 구전 전승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Marciond의 정경은, 다소간 후대의 서문들에 의해서 보여주는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특징지어 있는데, 분명히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된 성격이었다.

이 부로 구성된 새로운 경전이 2세기말에 발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Vienna와 Lyones의 교회들의 서선들 속에서 177년부터 요한계시록을 로 인용하고 있었다.

2세기말의 세 명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4복음서와 13통의 바울 서신들, 사도행전은 베드로전서, 요한서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포함된 사도 서신들을 내용으로 하는 신약 성서를알고 있었던 반면에, 일반 서신들과 히브리서의 경전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종종 다른 문서들이 경전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개별문서들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킨 동기들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주 분명했던 의식은 예언적인 문서들의 숫자가 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적인 문서들도 정확한 한계가 정해져서, 새로운 경경도 확정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고대 교회에서의신약정경의 확정

1. 오리겐에서부터 고대 말엽까지 헬라교회 내에서의 신약성서.

오리겐은 자기 세대에 신약성서와 관련해서 교회의 여러지방 별로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고, 이 연구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몇가지의 결론들을 이끌어 낸 것이다.

(1) 첫째부류는, 그에의하면, 에 속하는 것이다.

(2) = 의심스러운 문헌들 : 베드로 후서, 요한2서, 3서, 히브리서, 그외에 야고보서와 유다서, Hermas의 목자서와 Didache를 로 인용함.

(3) 에집트 복음서, 도마 복음서, 바실리드 복음서, 맛디아 복음서 이런 것들은 이단적인 왜곡이 있는 것으로서 배척됨.

3세기에는 Codex Claromontanus에 의해 다른 증거가 제시됨. 이 목록 안에는 4복음서와 13통의 바울서사들, 7통의 일반서신들,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등이 열거되었다.

신약성서의 사도적 서신들의 한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이사라의 Euswbius가 자기의 교회사에서 신약성서에 관해 발했던 확대된 논쟁에서 나타난.

(1)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2) 의견이 나누이는 것

(3) 완전히 분별없고 불경건하며, 참된 신앙에서 이탈된 이단자들의 위조인 것

그에게 있어서 의견이 나누이는 것을 두 그룹으로 나눔.
유세비우스 자신이 증거하는 7통의 일반 서신들을 대부분은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는 문헌들과 의견이 나누이는 문헌들 중 첫째 그룹이 함께 묶일 수 없다면, 현대적인 의미의 신약성경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동방 교회에 있어서는 367년의 Athanasius 의 39회 부활절 축제 서한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이 서한은 거의 완전하게 헬라어, 시리아어, 그리고 콥트어로 보존 되어 있다.

후기 비잔틴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신약 성서의 헬라어 문헌들 중에는 단지 몇



개 만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들은 그 본문이 주석의 일부로서가 아니면 비성서적인 문헌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2. 시프리아에서부터 5세기까지의 라틴 교회에서의 신약성서

Novatian (약 250년 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열 세통의 바울 서신들 이외에는 단지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만을 “성경”으로 인용.

Jerome 은 서방과 동방의 경전 사이의 구분을 철폐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Ambrosioster 라는 사람은 히브리계를 제외한 13통을 바울 서신들로 제한 했으며, Pelagius 도 로마에서 약 400년 경에 시도함.

4세기 후반에는 Ptoeters 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사도적인 것으로 인용함.

3. 동방의 국가 교회들 안에서의 신약 성서

5세기 초에 생성된 시리다의 전승인 Doctrina Addai 가 전하는 바로는, Edess의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자기를 고별 설교에서 후임자 Aggai 에게 훈계하기를 구약성서 이외에는 복음서, 바울 서신들, 사도행전 등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것 이외

의 다른 문서들이 교회에서 읽혔는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5세기 초에 감독안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시리아 교회의 성경인, 소위 말하는 Peshitta 가 형성됨. 히브리서를 포함한 14통의 바울서신들 다음에는 세 통의 일반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서 등이 있었고, 요한계시록등 다른 것들은 제외되었다.

508년에 Mabby 의 감도 Phildyenus에 의한 공인개정 작업 - 즉, 신약성서의 새 번역 사업으로서, 소위 Philoxeniana - 과 616 년에 Harkel 의 Thomas 에 의한 수정 작업에는 요한2서, 3서와 벤후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포함됨.

종교 개혁 이후의 서방교회에서의 정경과 정경에 대한 신약적 문제

1442년에 플로렌스 공회에서 서부 시리아의 아람파와 연합할 때에도, 아타나시우스의 정경은 다시 한번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공인되었다. Trent 공회는 구약 성서 전체와 신약성서 전체가 Vulgate에 수록되어 있는 그대로 정경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모든 개별적인 책들을 열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는 바울의 14번째 서신으로,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의 것으로 열거되었다. 공회는 전체 성서의 모든 책들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함.

비록 신약 정경의 외적인 역사는 종결되었지만, 계몽주의 신학 시대 이후로 정경에 대한 교회의 제한과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정경의 구속력 등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테마가 문제가 되었다.

Semler 시대 이후로 얻어진 바를 정경의 범위에 대한 여러 세기에 걸친 동요와 역사적 발전에 대한 통찰이야말로 정경의 이러한 형성의 가치와 합리성을 고려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경의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문서들로 구성된 두 부분으로 된 정경이 교회의 삶속에서 2세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정경의 범위에 대한 고대 교회의 결정들은 대부분 사도성을 문제 삼았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도성이라고 하는 기준도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경의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개방성과 사실상의 한계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어떤 사본에 근거하고 있는가

신약성서의 원본에는 원저자 자필의 원본은 없다. 그러므로 모두 사본에 의하여 전승되어 있다. 신약성서의 원본의 재건에는 (1) 그리스어 사본,(2)고대 번역, (3)교부들의 저서 중에서 성서를 인용한 것과 언급한 것 등의 세가지 사료가 주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그리스어 사본이 주요 사료가 되며,고대의 번역과 교부들의 인용구나 언급, 그리고 그 밖의 단편들은 2차적인 사료가 된다. 그러나 번역도 양질이나 정본의 독법을 반영했을 경우는 그리스어 사본과 맞먹는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의 인용이나 언급은 중요한 도움이 된다.

그리스어 사본의 수는 5천을 넘으며, 이것은 다음 네 종류로 분류된다. (1) 파피루스(사본수 81),(2) 대문자 사본(267),(3) 소문자 사본(2768), (4) 일과서(2146)

신약성서의 주요 사본은 기원 2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것이 많이 남아있다. 대문자 사본으로 주요한 것으로는 시나이 사본(4세기,시나이산 기슭 수도원에서 발견되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 대영박물관 소장)바티칸 사본(4세기,바티칸 도서관 소장)알렉산드리아 사본(5세기,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것, 대영박물관 소장), 에브라임 사본(5세기,중기 사본,배자 사본(5-6세기,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대조판)등이 있다.

【출처】 더로렘 |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작성자 이종호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Thessalonians 5:16-18 NIV [16] Rejoice always, [17] pray continually,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 rejoice : 기뻐하다
- continually : 끊임없이
- in all circumstances : 모든 상황에서
- will : (바라는) 뜻

테살로니가전서 5장16-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장'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중세 삽화로 읽는 요한계시록(10)
7년 대환난 원인에 대한
일곱 환상(제12장)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째 단계의 나팔 재앙(8-9장)과 세 번째 단계의 대접재앙(15-16장) 사이에 막간환상으로 삽입된 교회가 박해받는 7년 대환난(10-11장)의 비밀을 암호처럼 얹힌 네 가지 숫자와 함께 풀어 보았다.

42개월, 3일 반, 1,260일,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3년 반을 의미하며 재앙이 약한 전(前) 3년 반과 재앙이 강한 후(後) 3년 반을 합쳐 계시록(7:14)에서 언급한 큰 환난(The Great Tribulation)을 7년 대환난이란 학설로 정립하였으며, 여기의 7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제11장에서 7년 대환난 기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주범은 사탄(용)과 그 하수인인 마귀(짐승)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제12-13장은 막간환상의 계속으로서 용과 짐승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근원적인 원인을 일곱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3년 반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러한 집합가경인 계시록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일곱 환상들도 오히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천년이 지난 그

옛날 중세시대에 한 평생 필사본 성경과 기도서를 만들던 깊은 신앙심과 성경에 밝은 이름 없는 수도원 필경사와 화가들이 묵시록 사본에 그려 넣은 메누스크립트(삽화)를 자세히 뜯어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유럽에서는 종말론의 그림자로 아직 뒤송송하던 1086년경에 스페인의 오스마대성당에서 베아투스 라에바나의 요한묵시록 주해서 사본을 필사하면서 삽화를 첨가한 성서가 오스마 베아투스 묵시록 사본이다.

오스마 베아투스 사본에 수록된 <계시록 12장의 여인과 용>이라는 삽화는 한 장의 그림 속에 요한이 본 일곱 환상 중에서 첫째 환상부터 네 가지 환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 첫째 환상: 메시아 탄생을 저지하려는 사탄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빨 열 개가 달린 커다란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중략) 그 용은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표준 새번역 계12:1-4)

그림 왼편 여인은 예수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이다.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과 태양이, 발아래에는 달이 있다. 달은 교회가 있는 세상이다. 마리아 앞에는 일곱 머리 열 팔을 가진 큰 붉은 용(사탄)이 버티고 서서 아이가 나면 삼켜버릴 태세이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나님께서 천아백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계12:5-6)

위의 그림 위쪽을 보면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하여 옥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 여인은 하나님이 1,260일 동안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헤롯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난을 간 일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다시 3년 반을 의미하는 1,260일이 등장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7년 대환난 때의 후 3년 반의 박해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는 7년 대환난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주님을 핍박한 것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마르티누스, 필경 : 페트루스(Martinus, Scribe : Petrus), 계시록 12장의 여인과 용(The Woman and the Dragon, Apocalypse XII), 오스마 베아투스(Osma Beatus), 1086. 부르고데오스마 대성당 기록보관소(Burgo de Osma, Archive of the Cathedral), 스페인.

건강상식

몸이 차면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

주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고 매일매일 고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도 가뭄 때는 갈라지듯 금세 얼굴이 건조해져 당기는 느낌이 있고 각질이 하얗게 올라와 피부가 지저분해 보인다면 당신은 몸이 냉한 사람이다.

체질적으로 몸의 기운이 차가운 냉체질의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넓으며 잘 붉어지는 열체질 피부와는 달리 대부분 창백하고 건조하다. 몸이 차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지면 피부는 더더욱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지며, 안색은 핏기가 없고 창백해진다.

냉체질의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피부관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밀가루, 녹두, 녹차 등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닭고기, 고추, 마늘, 참쌀, 벌꿀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짧은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등을

삼가고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하며, 적절한 운동으로 몸에 온기를 더하고 혈액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족욕을 하면 인체의 냉기가 해소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톱툰이 해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더불어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일단 스팀타월이나 증기 등으로 피부의 각질을 충분히 불려주고 흑설탕이나 살구씨 가

루 등을 이용해 팩을 해주면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클렌징을 할 때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크림에 흑설탕이나 살구씨 가루 등을 섞어 마사지하듯 클렌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질 제거와 더불어 보습과 영양 공급에도 힘써야 한다. 냉체질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피부 구성요소 수분과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 각질 제거 후 오트밀이나 다시마, 바나나 등으로 팩을 해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

가 되살아 난다.

특히 인삼은 냉체질 피부에 더없이 좋은 보약이다. 인삼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여 거친 피부를 매끈하고 윤기 있게 가꿔준다.

게다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주며, 파나킨산은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 따라서 인삼으로 팩을 해주거나 차로 마시면 냉체질의 피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 요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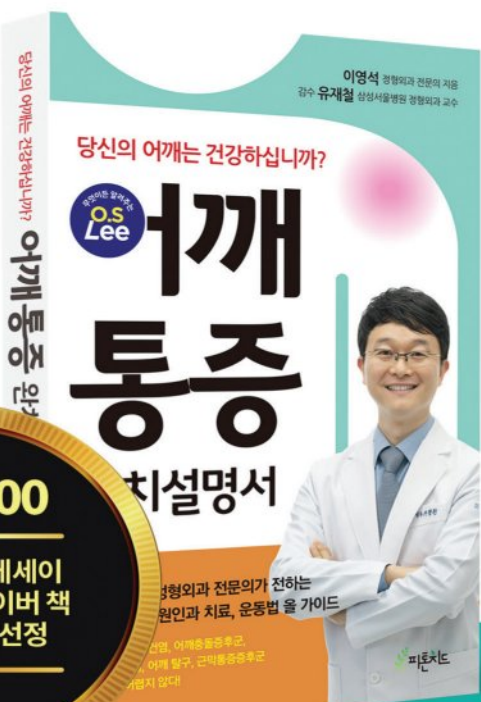
법이다. 페이스 요가는 다양한 표정을 통해 잘 쓰지 않는 얼굴의 근육까지 움직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면 혈액이 좋아져 안색이 밝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겨 주름도 예방할 수 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 열이 나도록 한 뒤 얼굴을 가볍게 감싸주고, 입을 크게 벌려 '아에이오우'를 반복해주면 된다. 이때 표정을 최대한 크게 당기고 눌러주어야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에도 탄력이 살아난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

2026년 9월 9일 교계단체 일정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2026 세계 예큐메니칼 평화대회 개최예배 및 평화 기도 메시지 전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미상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온라인 선교사례발표회 (전주 지역 오온빛 부목사 발표)	한국기독교장로회(가정) 총회 선교위원회 국내선교부	13:00	온라인 방송 송출
정규 예배 (새벽기도회 및 수요저녁기도회)	순천제일교회	05:30 (새벽기도회) 19:30 (수요저녁기도회)	순천제일교회 (저녁 예배는 온라인 병행)
2학기 첫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 및 섬김이 오리엔테이션	분당우리교회	10:00	드림센터 302호
농어촌교회 섬김의 날 일정 시작	성현벨렐교회	미상	자체 운영
제344차 구미 남 지역 가정교회 특강 및 세미나 시작	국제가사원 (House Church Ministries)	미상	구미 남 지역

2026년 9월 9일 한국 교계는 연합기 관의 대규모 국제 행사를 비롯해 각 교 단 및 개교회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 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 회(CCA)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예큐메 니칼 평화대회'를 9월 9일부터 13일까 지 개최할 예정이다. 9일 당일에는 대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공식 개 회예배가 진행될 것이다. 해당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분쟁 지역 파트너들이 참석하며,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 소속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가 연계 일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구하 는 기도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정) 총회 선교위 원회 국내선교부는 9일 오후 1시, 전주

지역 오온빛 부목사가 발표하는 사례발 표회 프로그램을 공식 방송으로 송출 할 예정이다.

개교회 및 유관 단체들의 예배와 행 사도 이어질 것이다. 순천제일교회는 오 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와 오후 7시 30 분 수요저녁기도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 이다. 분당우리교회는 오전 10시 드림센 터 302호에서 2학기 첫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것 이다. 이와에도 성현벨렐교회는 9일부터 농어촌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 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제가사원(House Church Ministries)은 구미 남 지역에서 제344차 가정교회 특강 및 세미나를 개 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선교

2026년 9월 9일 주요 선교단체 및 유관기관 일정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2026학년도 2학기 신앙수련회 시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	미상 (9월 9일 시작)	미상
테슈바 40일 기도회	에클레시아 선교회	21:00	온라인 화상 플랫폼 (Zoom)
지정 중보기도 (김승호, 김순희 장기 선교사)	한국OMF	미상	미상 (각 처소)
공식 말씀 묵상(QT) 일정 수행	예수전도단(YWAM)	미상	미상 (각 처소)

2026년 9월 9일(수요일), 국내 주요 선 교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정기 기도회 및 수련회, 묵상 사역 등의 일정을 일제 히 진행할 예정이다.

선교 유관 교육기관인 아세아연합신 학대학교(ACTS)는 9월 9일부터 11일까 지 학생들의 필수 참석 과정인 2026학 년도 2학기 신앙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

각 선교단체의 기도회 및 중보기도 사 역도 당일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 다. 에클레시아 선교회는 8월부터 이어 오고 있는 '테슈바 40일 기도회'를 9월 9 일 당일 밤 9시 화상 플랫폼(Zoom)을 통해 열 예정이다. 한국OMF는 국내에 서 OMF 유학생 사역을 담당하는 김승 호, 김순희 장기 선교사를 당일 집중 중 보기도 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속 선교사

및 후원자들과 함께 관련 중보기도 일 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수전도단(YWAM) 본부는 9 월 9일 산하 간사 및 훈련생들의 공식

묵상(QT) 본문을 '사도행전 12장 1절에 서 10절'로 배정하여 당일 기초 훈련 과 정 및 사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NGO

2026년 9월 9일 기독교 NGO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기독교 문화순례길(산티아고 프랑스길) 1차 출발 (한소망교회 연계)	월드비전	시간 미정	산티아고 프랑스길
꿈꾸는 아이들 사업 '정안 풋살 교실' 정기 활동 개강		14:00	지정 풋살장 (장안 지역)
발달장애인 핸드볼 영화 <퍼펙트슛> 극장 개봉 및 흥정길 이사장 축하	밀알복지재단	시간 미정	전국 극장
산하 굿윌스토어 이벤트 당첨자 경품 수령 주소 변경 마감		12:00 (정오)	굿윌스토어 고객센터

2026년 9월 9일, 주요 기독교 비영리 단체(NGO)들이 아동 지원 및 장애인 인 식 개선 등 각 단체의 목적에 맞춘 주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한소망교회와 협력하여 기획한 '기독교 문화순례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티아고 프랑스길(800km)을 도보로 완주하는 1차 여정을 9월 9일에 출발시킬 예정이다.

또한, 월드비전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인 '꿈꾸는 아이들' 프로젝트에 속 한 장안 풋살 교실이 9월 9일 오후 2시 를 기점으로 개강하여 오는 10월 28일

까지 매주 수요일 정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9월 9일 국내 최초 발 달장애인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 은 스포츠 영화 <퍼펙트슛>의 전국 극 장 개봉을 맞이하여, 재단의 흥정길 이 사장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알복지재단 산하 브 랜드인 굿윌스토어는 이날 오후 12시(정 오)를 기해 특정 이벤트 당첨자들의 경 품 수령지 주소 변경 접수를 고객센터 를 통해 공식적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다니엘 최 기자

글로벌감리교회 남아공 총회에서 신앙조항 채택 및 정식 감독 8인 선출

세계 7250개 교회로 교세 성장 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선교 협약 체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글로벌감리교회(GMC)가 남아프리카공 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정기 총회 에서 교단의 신학적 기준이 될 신앙조항 을 채택하고 8명의 정식 감독을 선출했 다고 9월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 서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지난 5일 샌튼 컨벤션 센터에서 공식 폐막했다. 전 세계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며 교 단 행정 및 재무, 사역과 관련된 총 451 개의 청원안을 처리했다.

◆정통 기독교 신앙 담은 신앙조항 채택 및 정식 감독 선출

글로벌감리교회 측은 총회 마지막 날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신앙조항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하 나님, 성경, 인류 구원, 성례전 등에 대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으며, 소속 교회들이 공유하는 신앙을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웨슬리 신학 전통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 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법안과 공식 결의 사항은 총회 사기의 검토를 거 쳐 추후 공표된다.

이어진 정식 감독 선거에서는 다섯 차 레의 투표를 거쳐 루터 오코너, 존나단 리, 마크 웹, 린돌 로이드, 제리 콜라, 에두 아르트 케가이, 폴 톨러, 캐롤린 무어 등 8명의 신임 감독이 선출됐다. 이들은 오 는 11월 1일부터 2032년까지 임기를 수행 하며 전 세계 8개 감독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신임 감독 선출에 따라 지난 2024년 첫 총회에서 도입됐던 임시 감독 체제는 오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된

다.

◆분립 후 7250개 교회로 교세 급성장 및 한국 감리교와 연대

글로벌감리교회는 교단 출범 이후 가 파른 교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마이 크 셰이퍼 교단 연대운영책임자는 지난 2024년 총회 직후 4700개였던 소속 교회 가 현재 7250개로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연회 수 역시 36개에서 55개로 늘어났으 며, 특히 미국 외 지역의 연회가 두 배 이 상 증가해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글로벌감리교회 총회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 선교 협약도 만장일 치로 승인됐다. 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 회 감독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요 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참석한 가운데 양 교 단은 역사적 공유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선교 연대를 결의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동성 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문제를 두고 미 국 연합감리교회 내 진보 진영과 갈등을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교단의 2026년 총 회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 그에 모였다. 총회는 8명의 감독을 선출, 성별하고 451건의 청원안을 처리한 뒤 9 월 5일 폐회했다. 이번 총회는 세계감리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개최한 첫 총회였다. ©Global Methodist Church

겪다 2022년 5월 성경적 권위 수호를 내 걸고 독자 출범했다. 이후 보수적 신학 노선을 지지하는 수천 개의 교회가 연합 감리교회를 탈퇴해 글로벌감리교회에 합 류하며 현재의 교세를 형성했다.

다니엘 최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17일 ‘기후 행동 컨퍼런스’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서울 한국포 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 세 이브더칠드런 기후 행동 컨퍼런스'를 개 최한다. 행사는 '아동의 목소리, 국가를 잇는 기후 행동'을 주제로 열린다.

오전 프로그램은 아동 참여 세션으로 시작된다. 한국과 네팔, 몽골, 베트남, 일 본, 마다가스카르 아동들의 기후 행동 영상 촬영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어센 블 아동 대표가 아동 기후 권리 선언문 을 낭독·전달한다. 개회식에서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과 강금실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 박지혜 국 회의원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한다.

이어 '아동 중심 기후행동, 현장의 이 야기를 잇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 린다. '마이 포레스트 차일드', '세이브더 칠드런 어셈블', '도전! 레드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담당자와 어셈블 운영진, 2026 퀴즈대회 우승 아동 등이 이야기

를 나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는 전 시 관람과 교류 시간이 마련된다.

오후에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원장·교수가 '기후위기와 국가 및 세대 간 구조적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알버트 살라망카(Albert Salamanca)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아시아 사무소 선임연구위 원이 '국가 간 기후 불평등과 글로벌 거 버넌스의 한계'를 다룬다. 최재경 세이 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기후위기대응팀 팀장은 '세대 간 기후정의'를 위한 글로 벌 기후 거버넌스 세이브더칠드런의 실 천과 제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각 주체별 기후 행동 성 과와 도전 과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 린다. 장병일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 대학원 초빙교수·그린아이디어랩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hwayeon.lee@sc.or.kr

다니엘 최 기자



“성전환을 되돌린 뒤, 후회 속에서 다시 찾은 믿음”

탈성전환 활동가 클로이 콜의 간증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에 반 대하는 미국의 탈성전환 활동가 클로 이 콜의 칼럼 ‘금단의 열매를 깨물다: 성 전환을 되돌린 한 여성의 후회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 됐다.

콜은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소외 감의 원인을 자신의 성별에서 찾았으며, 성전환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받아들여 15세에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미 국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성 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의 확대 과정 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주장 했다.

성전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콜은 이제 자신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한 다는 느낌을 ‘성별이 잘못됐다’는 해석 대신 고린도후서에 있는 바울의 ‘가시’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고 고백했다. 다음 은 그의 간증 내용이다. **(편집자 주)**

어린 시절 외로움과 소외감은 제게 낫 설지 않았습니 다.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 리거나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 심지어 누군가 제 편이라는 느낌조차 꿈에서 나 가능한 일처럼 여겼습니 다. 세상과 어 울리기보다 인터넷이나 비디오게임, 혼자 하는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쉬웠습니 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 구들’조차 저를 동정하거나 조롱했습니 다. 제가 공들여 그린 그림을 지워버렸고, 겨우 열한 살이던 제게 술 세 잔을 억지 로 마시게 한 뒤 비틀거리게 모습을 비웃 었습니 다. 저는 이렇게 잔혹한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어딘가 망 가져 있다고 느꼈습니 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 다. 에덴동산에서 인류가 마주 한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 다. 악마의 첫 전략은 다른 무언 가를 붙잡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 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제게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처처럼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은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겨우 열두 살이던 저는 어느새 여자로 태 어났지만 남성이 돼야만 행복해질 수 있 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 다.

당시에는 가족에게 성전환이 해결책이 라고 설명하는 의료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거와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 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치료하는 유수의 기관으로 알려 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 나라에서 작 동하는 거대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 했습니 다. 수년 뒤, 저는 그 구조의 실상 을 밝히는 일에 제 삶을 바치게 됐습니 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하얀 가운을 입은 늑대들: 의사와 병원들은 어떻게 ‘성 전환 의학’이라는 사기를 조장하고 이익 을 얻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 다. 그 내용은 저처럼 성전환을 되돌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전환 의료산업이 잘못된 전체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해 왔습니 다. 이 보고서는 취약한 아동을 돌봐야 할 의료기관의 부당한 보훈 청구와 재정적 유인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취약한 아동이었기에 이 러한 행태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 저를 돕기 위해 의료진을 찾았을 때, 성전환 수술을 막으면 저를 잃을 수도 있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



탈성전환 활동가 클로이 콜(Chloe Cole). ©CBC News 영상 캡처

이 찾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 던 수치는 ‘41%’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자살할 확률이 41%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부모의 판단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트랜스 젠더 및 성별 비순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데서 나왔습니 다.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41%가 호르몬 치료나 수술 을 받지 않으면 자살을 시도한다는 의미 가 아닙니다. 그 수치만으로 의학적 성전 환이 자살을 예방한다고 입증할 수도 없 습니 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둔 부 모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아 이의 성전환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 레를 준비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다른 많은 가족도 ‘살아 있는 아들이 나, 죽은 딸이냐’라는 끔찍한 선택을 요 구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절박함 속에서 의료적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에게 성전환 의료행위 와 자녀의 죽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 록 압박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자해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 특정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수술을 받는 데만 달려 있다는 설명부터 경계해야 합니 다. 그것 자체가 관련자들에게 위험 신호가 돼야 했습니다.

저처럼 미성년기에 성전환 의료행위를 받은 이들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이 운동의 주장과 의학의 기본 원칙 을 조화시키기 어려웠습니 다. 제가 열다 섯 살에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은 때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인 들이 임종을 앞둔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 차 하지 못하고,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처럼 삶의 질에 중요한 시술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수술은 허용됐습 니 다. 저는 제 건강한 몸이 젠더 이데올로 기 운동의 희생양이 됐다고 느꼈습니 다.

미국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2010년대부 터 2020년대에 걸쳐 소아·청소년 대상 성 전환 프로그램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 다. 보고서가 제시한 2019년 이후 청구액 은 약 1억 2,000만 달러로, 수술을 받은 미성년자 5,747명과 호르몬사춘기 억제제를 투여받은 미성년자 8,579명이 관련 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 청구에 사용된 진단코드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 다. 보건복지부는 성 정 체성 장애 자체가 내분비 질환이 아닌데 도 의료 제공자들이 사춘기 억제제의 보 험 적용을 위해 ‘상체불명의 내분비 질환’ 등의 진단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내분비 질환’이나 ‘성조숙 증’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억 제제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약 5,000만 달러가 청구됐다고 밝혔습니 다.

저는 이러한 사례가 의료 권위의 남용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생 각합니다. 성전환 의료산업의 실태를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드러납니 다. 숨겨진 문제가 충분히 밝혀질 때까지

저는 행정부가 아동과 가족을 위해 이 러한 기관들에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하 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와 범 집행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아 동에게 해당 시술을 시행한 의사와 병원 을 대상으로 20건이 넘는 소환장을 발부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왜 제 모습 그대로 살 아가는 일이 그토록 불편한지 설명을 찾 아 해했습니다. 성장하며 겪었던 어려움 과 삶의 목적에 관한 고민에 명확하고 과 학적인 해답이 있기를 바랐습니 다.

저는 제가 망가졌다고 느꼈지만, 흠려진 조각을 맞추기 위해 잘못된 곳에서 답 을 찾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깨어진 세 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창조주께 서 저를 여자로 만드신 일이 실수였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게 성전환은 금단의 열매를 깨무는 일과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맞지 않 는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는 계속해서 다음 변화를 갈망하는 악순 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거듭 벽에 부딪힌 것은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기보다 제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 는 일이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 니 다. 기독교는 세상의 고통이나 하나님 께서 부르신 삶에 따르는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든 여성이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학 업에 뛰어나든 세상살이에 능숙하든 삶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을 하나님 께서 우리를 위해 써 내려가시는 이야 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 는 데서 찾습니 다. 고린도후사에서 바울 은 자신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받은 응답은 “내 은 헤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저의 연약함이 몸을 바꾸야 한 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보고서의 통계 뒤에는 의료적 문제를 넘어서는 질문을 품은 아이들이 있습니 다. 이름이나 머리 모양, 옷차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아이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 니 다. ‘나는 왜 아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나는 누구일까? 언제가는 어딘 가에 속할 수 있을까?’

저는 수많은 아이가 이러한 질문에 답 을 주겠다는 의료기관의 약속에 이끌렸 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몸도 우연 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창조 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이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 에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기 원하십니 다.

한동대 파랑뜰, 지역주민 위한 가을 문화공연 무료 개최

9월 14일 오후 7시 파랑뜰 장량캠퍼스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 한동해지역 혁신원(원장 김광) 파랑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파랑뜰 장량캠퍼스에서 가을 맞이 무료 문화공연을 연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공연은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부담 없이 무대를 접하고, 음악을 매개 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나 도록 기획됐다. 파랑뜰은 그동안 주민 대상 교육과 강좌를 비롯해 클래식 음

악회, 콘서트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무대에는 한동대 재즈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즉흥적 새벽 두시’ 출신 졸업생 과 재학생이 함께 꾸린 ‘대성한 밴드’가 오른다. 보컬·기타와 베이스, 피아노로 구성된 3인조로, ‘가을이 오면’을 주제로 1990년대 대중음악을 어쿠스틱한 감성

으로 재해석해 약 1시간 동안 7~8곡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대학 구성원이 지닌 문화 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학교 측은 “캠퍼스 안에 머물 던 교육·문화 자원이 주민의 일상 공간 까지 이어지면서 대학과 지역을 잇는 접 점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광 한동해지역혁신 원장은 “파랑뜰이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문 화를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 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 그램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 파랑뜰은 글로벌대학사 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 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 하는 로컬캠퍼스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김진영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마음 키우기 1



이선중 찬양예배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얼마나 동일시하며 사는가?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만 부족한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길을 떠난 선승들에게나 깨달음에 취미가 있는 자들에게나 혹은 자신같이 거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예수 비슷한 경지의 사람들에게나 말씀하시지, 그 말씀에 공감하기도 어려운 다수의 어리석은 대중을 아무렇게나 선택하여 날 따르라 해놓고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그 어리숙한 제자

들에게 하셨을까?

자기 능력과 말씀의 능력 중에 무엇이 더 강한가? 세상은 전자를 선택한다. 조금 모자라는 그룹들과 소수의 착한 교회 오빠들은 후자를 선택하려고 엉겨주춤 교회 근처에서 산다. 예수께서는 머리로 깨닫고 인식하고 통찰하는 능력과 말씀이 지닌 능력 중에 말씀이 지닌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당시 예수가 인텔리전트한 그룹이었던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아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있는 학사나 통찰과 깨달음이 남달랐던 예세네 학파로 찾아 가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지닌 앞선 능력이 말씀의 능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것이 다.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다. 자신이 결정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어려운 일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나 자신의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쉬운 일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보다 위대한 반석이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크신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말씀 앞에 선 자의 의무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은 주께서 주신다. 주를 의지하면 이 마음에 이르는 것은 아주 쉽다. 자신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그의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쉽지 않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친다. 돈도 명예도 만족도 기쁨도 마음 키우기를 우선하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호기심에 불과하다. 삶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보다 호기심에 더 치우치면 세월에 지게 된다. 자신을 이기지 못해 자기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뜻을 두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여전히 직업과 수입과 성공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고 평판과 시간을 말하지만, 마음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사람으로 본다. 사는 문제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실상은 더 처참하게 자아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는 자신에 화가 나서 드높은 경지를 쳐다보기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공유하고 있는 평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시비해서는 마음의 본질에 이르기 어렵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전하를 좌지우지해도 자신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화를 내는 건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하려는 의지에 뜻을 두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여전히 직업과 수입과 성공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고 평판과 시간을 말하지만, 마음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사람으로 본다. 사는 문제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실상은 더 처참하게 자아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는 자신에 화가 나서 드높은 경지를 쳐다보기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공유하고 있는 평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시비해서는 마음의 본질에 이르기 어렵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전하를 좌지우지해도 자신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화를 내는 건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3의 사업을 주셨다. 자신이 무엇을 욕구하고 소망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지에 그토록 민감하고 집중하고 영원히 추구하는 것에 회의의 눈으로 보신다. 풍요는 이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삶에는 갖고 태어난 부유함과 만든 부유함만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부유함도 실질적으로 첫 번째 부와 두 번째 부를 간섭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지만 그 깨달음은 이 땅에서는 소수만이 누린다.

마음은 언제나 요동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고난에서 단 한 번도 평정을 쉬 얻을 수 없지만 큰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면 다 지나가는 일이고 큰 감사와 넘치는 기쁨이 온다. 그래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며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다. 돕는 것은 마음이 감동하고 마음은 주께서 도우신다.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우리의 생명을 촉추게 한다. 마음에 접촉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찬양은 주께서 도우시는 마음에서 부르는 영적인 기도다.

◆이선중 찬양예배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시편 1편의 음악목회 이야기

시편 1편 묵상에서 떠오르는 음악목회 단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암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김영국 목사

- 하나님의 찬송가집인 시편이 “복 있는 사람”(시편 1편)으로 시작하듯이 우리의 찬송가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찬송가 1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 교회론을 다룬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교회인 우리

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셨다(엡 1장).

- 음악목회는 사람들을 인간의 진정한 복,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는 음악적 사역이다(창 12:12의 아브라함의 축복, 민 6:24-26의 백성의 축복).
- 음악목회는 음악의 연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통하여 세상의 악과 죄와 오만과 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영적 사역이다.
- LA필하모닉의 음악감독 구스타보 두 다멜의 말은 음악목회에 좋은 충고다: “사람들을 화합하고 결속시키는 것은 음악가와 아티스트의 중요한 임무다. ... 사회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힘을 합치기 보다 뿔뿔이 흩어진다. 우리는 예술가로서 사람들을 결속시켜야 한다. 음악이 그들의 불안함을 치유하는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술가의 일이다. ‘음악은 마법이고 우리를 지배한다. 어떤 음악이든 그렇다.’ 음악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LA필하모닉은 자기만족에 그치는 연주자나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한다.”
- 음악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지만 천사장 루시퍼의 악과 죄와 오만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그들도 음악을 도구로 삼고 있다(사 14:12-14; 겔 28:13-17).

- 음악목회는 세속음악의 속성인 완벽주의와 탁월성이 교회음악의 속성인 최선성과 예술적 성육신의 정신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 음악목회는, 교회음악을 그리스도의 말씀(골 3:16)과 진리의 성령(엡 5:18) 인도하는 사역을 추구한다.
- 가사(말씀)가 본질이고 그것을 담은 그릇은 형식(음악)이기에 그 그릇의 모양과 기능에 담긴 말씀이 다른 모양으로 전달될 수 있다.
- 음악목회는 교회음악의 선택에 대하여 그 음악이 가사(복음, 말씀)를 돕는 음악인지, 가사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곡인지, 혹은 손상을 입히는 음악적 기교를 갖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악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며 찬양과 예배의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탄의 최고의 무기도 음악임을 생각할 때 교회음악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승리할 수 있다 (렐 6:17).

- 다양한 음악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교회의 회중의 음악적 언어(회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를 고려하여 지혜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 교회음악의 선택은 설교와 예배에서 치명적이다. 선택된 음악의 가사는 복음과 교리와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가? 설교와 예배에 연결되고 있는가? 음악은 가사와 잘 조화되는가? 그 곡은 회중들의 익숙한 음악적 언어이며 어느 정도의 변화와 난이도가 용납되는가? 등등...
-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음악은 그 어떤 사역에 못지않게 말씀사역을 돕는 목회의 대상이어야 한다.
-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 음악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중의 진정 어린 찬송의 응답을 인도하는

사역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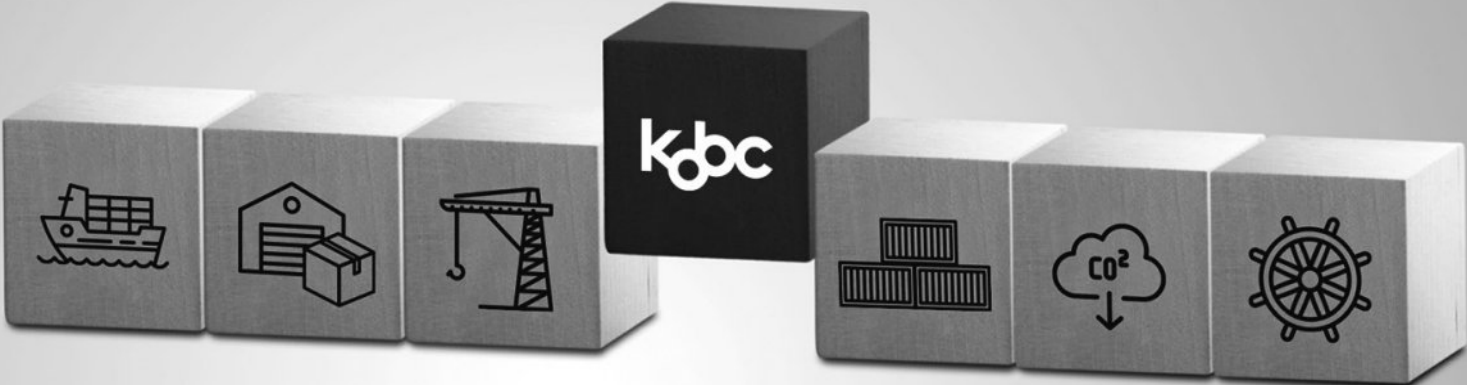
- 회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찬송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음악적 언어에 민감해야 한다.
- 음악목회는 세속적 음악(secular music)과 신령한 음악(sacred music)을 분별하고 악인의 음악과 성도의 음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 음악을 신령한 음악으로 승화시키는(transformed) 사역자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불후의 CCM 명곡’ 주제 ‘2026 크리스천송페스티벌’ 성료

세대별 대표 사역자들 한자리

한국 CCM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잇는 ‘2026 크리스천송페스티벌’이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비전컴퍼니(대표 한용길)와 GCM엔터테인먼트(대표 안찬용)가 주관한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세대를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와 CCM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크리스천 음악의 다양한 색깔을 선보였다.

공연에는 한국 CCM 1세대 찬양사역자 최인혁 목사를 비롯해 가스펠과이어 빅과이어, 박요한 목사, 예나엘, 크로스오버 그룹 유엔젤보이스, 류하나, 노아선교단, 히스플랜,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팀 팀조슈아 등이 참여했으며, 아나운서 조하늘이 진행을 맡았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CCM의 불후의

명곡’이라는 주제에 맞춰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찬양과 새로운 세대의 감성을 담은 곡들을 함께 선보였다.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오셨네, 너는 꽃이야’ 등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 온 찬양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함께 부르며 옛 찬양의 향수와 새로운 찬양이 전하는 희망을 나눴다.

한용길 비전컴퍼니 대표는 “이번 페스티벌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찬양을 통해 지진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는 시

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찬양과 새로운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안찬용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는 “한국 CCM에는 세월이 흘러도 다시 불러야 할 소중한 찬양들이 많다”며 “이번 무대가 옛 찬양의 감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찬양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래하는 찬양사역자들에게 ‘계속 노래해 달라’는 응



2026 크리스천송페스티벌이 지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GCM엔터테인먼트

원과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6 크리스천송페스티벌’은 세대를 넘어 함께 찬양하며 한국 CCM의 소중한

명곡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찬양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크리스천 음악 축제로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정선희, 사별 후 아픔 고백…“기도와 동료들이 버팀목”

유연비어·악성 댓글로 겪은 고통 회상…결을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

코미디언 정선희가 남편 안재환과 사별한 뒤 유연비어와 악성 댓글로 겪었던 고통을 털어냈다. 신앙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결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선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사별 이후의 심경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배경을 이야기했다.

◆ 사별 후 이어진 유연비어…“가족에게

도상처”

정선희는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종교에 의지했다고 밝혔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고 묻던 시기에도 신앙을 통해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회상했다.

당시 집 앞에는 취재진이 장기간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가족들이 집 앞에서 30~40명이 두 달 동안 안 떠났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었다”며 “그런데 몇몇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코미디언 정선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화면 캡처

은 제대로 전달도 안 했다”고 말했다.

정선희는 집 근처 교회에 다니고 있었

는데도 자신의 행적을 둘러싼 유연비어가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선희 실종, 정선희 투신’ 이런 게 났다”며 “이런 유연비어가 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털어냈다.

악성 댓글은 다시 대중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선희는 “이 고통을 주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사람

들이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너무 큰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에게도 상처고 평생 날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고 명예 아니냐”며 “이런 결과였다면 날 코미디언을 왜 시킨 거냐고 하기도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성미는 정선희를 위로하며 오랜 시간 그의 결을 지켜준 사람들을 언급했다. 그는 “긴 시간을 잘 통과했다”며 “그 시간을 통과하는 데 네 옆에 사랑하는 언니들, 동생들, 동료들이 있지 않았나”고 말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정선희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정선희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없었으면 난 쓰러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선희도 “100%”라고 답하며 공감했다. 그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연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뜨거운 언니, 오빠들 연합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희이 취져야 했다. 죽을 생각을 못 한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여러 자리에 데리고 다니며 함께해준 것이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나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TV사백예배 마포성현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9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9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영광재일(이기용)	10 장충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순복음진주초대-이경은 30 생명의 말씀 부산초광-김대훈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사랑의 메시지 부민 (박현영) 50 GOODTV NEWS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74회) 50 [말씀] 황상수 목사(한사랑교회)(10회)	00 생명의 양식 삼송(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7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생명의 말씀 창원삼남-이창교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 (소문수)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욱)	30 휴먼네트워크(58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44회) 40 찬양예배 주남께 맡기는 시간(1841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말산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3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9일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599회)	00 하나님의 음성(26회) 20 CBS 성서학당 (최주훈) 영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9장	00 성지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레터 30 비전메시지 은혜대림교회 최인선 목사
09:00	00 신교회행진(10회) 진광교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7장	00 시토피아 12세 30 비전설교 선한목자 (김다우)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7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3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선소)(231회)	10 새롭게하소서(11492회) 가수 이지현 2부	00 플라보르(35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아테네, 고린도 40 성경 속 인물사(23회) 뭇, 끝까지 떠나지 않은 여인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일예 이영훈 목사	20 RE바이블(44회)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33회)	00 김재원의 꿈아래전(31회) 텐트 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라제전 회장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네팔 긴급구호 특별방송 50 신앙에세이	30 행복한 쉼터 화광 (윤호균)	10 [말씀] 백상욱 목사(오늘의교회)(12회) 50 Q&A 107 소요리문답(23회)	00 예수 영광의 면류관(10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52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보충 2강 30 C채널 매가진 쿠테이(422회) 50 믿음의 라엑션(26회) 제주도 2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사랑의 메시지 마라나타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3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541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78회)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스peak 된다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3회)	00 행복한 쉼터 오매가 (황성은) 30 행복한 쉼터 높은뜻정의 (정재상)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13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9회)	20 2025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4회)	20 플라보르(35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아테네, 고린도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6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67회) 이준철 변호사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9일 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410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11113회) 박정욱 원장	00 백석의 선택(20회)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네팔 긴급구호 특별방송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큐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3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9일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53회) 고린도후서 26강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상문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행복한 쉼터 세계로방주 (방재길)	00 하종조 목사의 오히려를 강해(62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3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7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9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말산 목사
17:00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론의 꽃 필 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60회)	10 더 콜링(181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42회) 5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진)	00 성지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레터 30 오직주님 명성의 위상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예원-정은주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10 사랑의 메시지 춘천 사랑의(윤대영)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THE NEW 하늘빛항기 (47회)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2회)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복음강단 군포세리교회 안성복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성교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2회)	00 거룩한 뜻 세움의 시간(76회) 30 TV강단 (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완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1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림 (지영아) 40 노크토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9일 20 RE바이블(44회)	00 한소말 말씀 (최봉규)(178회) 50 크리스천칼럼, 분당구미(김대동)	3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62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1:00	00 메신저스 원유경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33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2026년 09월 09일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5회) 영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9장 50 살롱 살롱(47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215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7장	00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9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49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92회) 가수 이지현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4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49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5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CTS믿음의 명작] 4인 4색 흥민기 목사 1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매일 주와 함께	1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34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9일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3회)	10 맨투맨 처치(2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19회) 50 찬양예배 주남께 맡기는 시간(1841회)	00 이석 목사의 삶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5회) 50 라이프즈 워십
00:00	00 Calling GOD(2566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사랑의 메시지 순천 신성 (김만철) 4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9일 20 CGN 비전특강(701회)	10 하나님의 음성(26회) 30 세상을 보는 창(324회)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01:00	00 더 초존 시즌1(더빙)(3회) 15세 40 찬양의 섬 50 박세현의 크로스루(20회)	10 예배실황 한소말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최충부 목사(남서울교회)(429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71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2회) 40 성령의 시대(57회)	0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88회) 40 성경 속 인물사(23회) 뭇, 끝까지 떠나지 않은 여인
02:00	1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네팔 긴급구호 특별방송	10 노크토크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69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감병상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45회)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7장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34회)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신통증양장로교회)(318회)	00 올포원(768회)	00 만나 워십 감병상 목사
0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여의도제일 (박대준)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51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54회) 마태복음 47강 50 CBS 교회소식(106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8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 관동 이름 목사의 성경 백작기(482회) 고린도전서 12장 백작기 8